



러시아

수산물 소비트렌드



1. 시장동향 및 소비동향

가. 러시아의 수산물 생산

- 러시아의 수산물 어획은 내수에서 4%, 해양에서 96%가 이루어지고 있음. 수산물조업구역은 ①극동어장(극동해역, 오희츠크해), ②북부어장(북해, 바렌츠해, 백해), ③서부어장(발틱해), ④아조프해-흑해어장, ⑤카스피해어장 등이 있음



- 러시아의 어류 및 수생생물자원 어획량은 약 3.7백만 톤(2009년)으로 집계되며 최근 6년간 4.7%의 성장률을 보임

<어류 및 수생생물자원 어획·채취량>

(단위: 천 톤)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성장률 (2004-2009)
어획량	2,965	3,212	3,264	3,417	3,333	3,728	4.7
- 내수	244	249	241	239	245	266	1.7
- 러시아 어획수역(해양)	1,785	1,947	1,977	2,195	2,035	2,652	8.2

자료: 연방통계청

- 어류 및 해산물의 약 70%는 극동해역에서 어획되고 있으나, 소비는 러시아 서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2009년 전체 어획량(3.7백만 톤) 중에서 극동지역에서 약 2.5백만 톤, 북서지역에서 약 1.1백만 톤이 어획됨

<러시아 연방관구별 어류 및 수생생물자원 어획·채취량>

(단위: 천 톤)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러시아연방 전체	2,965	3,212	3,264	3,417	3,333	3,728
중앙연방관구	12.3	14.6	15.7	16.0	15.3	15.3
북서연방관구	1,065.2	1,064.5	1,086.9	999.2	959.7	1,073.9
남부연방관구	113.2	124.4	123.3	132.9	126.4	126.6
볼가연방관구	5.9	6.4	8.4	9.2	9.6	8.1
우랄연방관구	18.7	22.0	20.6	20.9	23.6	24.9
시베리아연방관구	8.5	8.3	9.0	7.6	9.5	11.7
극동연방관구	1,741.4	1,972.1	2,000.2	2,231.7	2,188.4	2,467.8

자료: 연방통계청

- 양식업 발전의 경우, 연방수산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어류·해산물 양식은 전년대비 19.3% 증가한 115천 톤(어류 9,432백만 마리)으로 집계됨. 아직 러시아의 양식업 발전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음(전 세계 양식업규모의 0.22%에 불과함). 소련시절 1980년대만 해도 연간 599천 톤을 기록한 바 있음
- 2010년에 러시아정부는 ‘2020년까지의 러시아 양식업발전전략’ 을 승인하였고 2020년경 연간 410천 톤까지 양식업 제품생산을 증대시킬 계획임

<러시아의 수산물 생산량>

(단위: 톤,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성장률 (2004-2009)
합 계	3,063,177	3,322,821	3,402,263	3,568,363	3,509,646	3,949,267	5.2
어선어업	2,953,159	3,207,824	3,295,920	3,462,560	3,393,966	3,831,957	5.3
양식어업	110,018	114,997	106,343	105,803	115,680	117,310	1.3

자료: FAO 통계

- 러시아에서 어획되는 산업적 가치를 갖는 주요어종은 명태(2010년 기준, 전체 어획량의 약 50% 차지), 대구, 청어, 곱사송어, 해덕 등임

<수생생물자원 종류별 어획·채취량>

(단위: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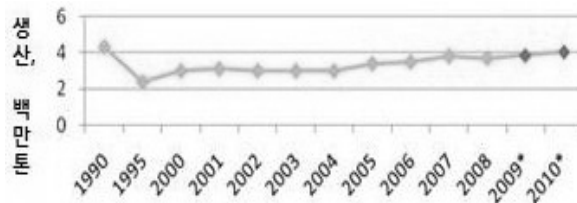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청어	298,510	349,859	351,794	336,774	347,628	390,634
정어리(sardine)	6,014	13,603	51,743	70,002	29,863	28,183
킬카(kilka)	42,549	46,749	45,218	39,573	22,367	21,330
카(black sea sprat)	7,431	6,657	6,928	7,448	6,720	7,329
꽁치	71,216	75,453	67,138	86,325	84,486	31,137
살라카(baltic herring, sprat)	11,253	13,744	12,560	12,844	12,990	12,641
안초비(유럽멸치)	9,475	6,695	5,624	6,907	10,252	11,447
잉어과(roach)	1,684	1,663	2,021	2,588	3,157	3,475
붕장어	59	56	51	62	18	9
칠성장어	-	-	2	-	1	-
낭어	24,555	14,284	11,818	9,660	8,257	13,770
수닥(잔더)	2,814	2,790	2,678	2,595	2,258	1,785
잉어(사잔)	4,282	2,365	2,719	3,122	4,032	5,002
메기	4,638	5,404	7,151	7,990	7,560	8,477
레쉬(커먼 브림)	20,772	28,235	20,117	19,655	21,257	22,473
노던 파이크	6,152	6,440	7,062	6,834	8,706	8,951
잉어(카르프)	17,276	19,804	22,529	24,612	25,502	25,295
대두어	11,777	11,785	14,037	17,114	14,229	14,135
고등어	111,640	83,687	93,353	82,832	74,520	81,587
대서양붉은볼락	44,591	37,484	40,401	32,639	26,096	31,146
아틀란틱 호스 마크렐	71,590	83,948	65,383	26,069	54,815	73,444
아무르	246	332	336	797	928	1,646
임연수어	43,469	46,051	41,998	41,112	50,983	51,104
도미	711	2,120	812	548	1,022	1,109
베릭스(금눈돔)	71	297	-	-	-	-
갈치	39	90	-	-	-	-
열빙어(카펠린)	2,251	2,876	2,261	6,224	8,516	68,788
리모네마	22,473	24,461	24,854	23,717	20,212	16,909
참치	25	37	438	1,808	1	93
가자미	67,724	91,760	73,636	77,632	63,033	84,146
넙치	24,601	23,859	25,763	24,106	23,743	18,110
상어	1	40	145	449	469	101
가오리	5,283	2,001	1,377	2,492	1,614	2,435
대구	261,288	252,015	249,642	242,293	266,342	283,002
명태	857,460	948,233	1,002,958	1,203,080	1,261,807	1,270,829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해덕	55,408	50,001	51,533	61,628	67,161	80,070
철갑상어과	191	299	441	963	477	510
극지송어과	9,983	11,529	11,066	10,491	11,257	11,115
연어과	183,728	260,376	281,773	334,177	278,497	549,477
기타어류	144,826	160,129	144,319	146,200	117,598	119,515
갑각류와 연체동물	117,871	130,218	137,557	120,846	114,033	130,092
그중:						
계	32,940	30,298	40,351	45,036	39,671	36,234
새우	10,289	9,176	7,299	9,276	8,546	8,506
크릴	-	-	-	-	225	9,311
가재	11	10	5	32	1,179	1,928
연체동물	74,631	90,735	89,901	66,502	64,413	74,112
고등	2,309	9,875	5,264	4,495	6,074	6,366
오징어, 갑오징어	66,317	74,056	80,099	56,459	52,432	62,960
홍합, 굴	134	146	938	37	42	69
가리비과	4,060	5,674	3,080	4,356	4,583	3,080
극피동물(섬계)	1,184	2,644	3,821	5,857	6,608	6,111
조류	9,168	7,687	9,656	3,986	4,978	4,420
그중: 미역	8,857	6,653	8,217	2,910	4,576	4,298
바다표범	31	7	369	84	440	118
고래	-	683	347	528	270	71

자료: 연방통계청

러시아연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0-95년간 러시아수산업의 어류제품 생산량은 감소되고, 2000-04년간 시장은 불경기 단계에 놓이지만, 2005-07년에는 활발히 성장하여 연간 평균 4-6%의 성장률을 보임. 2008년에는 러시아 국내전체 경제위기로 인해 소폭 감소하지만 2009년에 들어서서 시장은 전년대비 4% 성장함. 연방통계청의 전망에 따르면, 2010년 어류제품 출하량은 4백만 톤으로 예상됨(약 5%의 성장률)

<어류제품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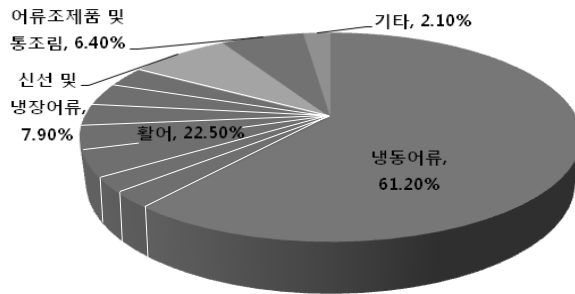
자료: 연방통계청

- ❑ 어류 및 어류가공제품 · 캔제품 생산규모는 2010년에 3,405,591톤으로 집계되며 2009년 대비 2%의 성장률 기록(2009년에는 3,322,622톤 생산)
- ❑ 어류가공업 부문의 특징은 어류 · 해산물시장과 마찬가지로 원료공급 의존성이 높다는 것임. 어종별 시즌 어획량과 수입시장 개방정도 등의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

나. 러시아 수산물시장규모

- ❑ 2011년 4월에 발표된 디스커버리 리서치그룹의 ‘러시아 어류 · 어류제품 · 해산물시장’ 조사에 따르면, 2010년 러시아시장규모는 4.06백만 톤으로 집계되며 2009년 대비 성장률은 -81% 기록. 어류 · 어류제품 · 해산물시장은 금액기준 약 101억 달러 규모임
- ❑ 어류 및 어류제품시장에서 리더(생산자, 수입상 등 모든 시장관계자 중에서는)는 ‘루스코예 모레’ 사이며 점유율은 전체시장규모의 12%를 차지함. 두 번째는 ‘아틀란트 퍼시픽’ 사가 4% 차지, 그 다음으로 ‘다 모라’사와 ‘데파그룹’ 이 3% 차지함. 그 외 기타업체들의 점유율은 훨씬 더 낮은 퍼센트를 보임
- ‘마켓 아날리티카’ 의 평가에 따르면, 러시아생산자들 중 주요업체는 ‘루스코예 모레’ , ‘록-1’ , ‘메리디안’ , ‘산타 브레모르’ , ‘발티이스키 베레그’ 순을 보임

<국내시장 어류제품 종류별 판매비중(2008년)>



자료: 연방통계청(2010년 발표자료)

❑ 냉장 어류·해산물



● 시장규모 : 2008년 금액기준 39,593.3백만 루블(1,549.2 백만 달러)로 집계(2003년~2008년간 연평균성장률 2.4%), 물량기준 643.2백만 kg 집계(1.7%)

● 전망 : 2013년 말경 43,763백만 루블(1,712.4백만 달러)로 전망(2008년~2013년간 연평균성장률 2% 예상), 688.2백만 kg로 전망(1.4%)

● 시장점유율: 2008년 금액기준, 빵가루입힌 어류·해산물(40%), 날해산물(34.9%), 날생선(25.2%) 비중을 보이며, 2013년 말에는 각각 42.2%, 31.8%, 25.9%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 2008년 물량기준, 빵가루입힌 어류·해산물(38.9%), 날해산물(38.8%), 날생선(22.4%) 비중을 보이며, 2013년 말에는 각각 40.6%, 36.5%, 22.9%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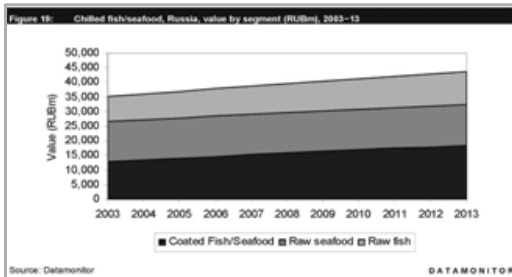
<러시아 냉장어류·해산물 시장규모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백만 kg,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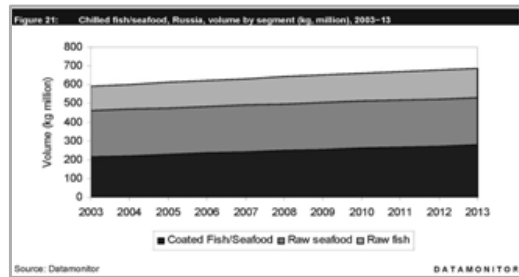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성장률 (2008-2013)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빵가루입힌 어류·해산물	618.9	249.9	640.8	256.3	662.4	262.5	683	268.4	703.2	274	722.7	279.3	3.10	2.30
날해산물	540.3	249.4	541.2	249.8	542.2	250.1	543.2	250.5	544.3	250.9	545.3	251.2	0.20	0.10
날생선	390	143.9	400.9	146.7	412	149.6	422.8	152.3	433.6	155	444.3	157.7	2.60	1.80
합 계	1549.2	643.2	1582.9	652.8	1616.7	662.3	1649	671.3	1681.1	679.9	1712.4	688.2	2.00	1.40
성장률	2.20	1.60	2.20	1.50	2.10	1.50	2.00	1.40	1.90	1.30	1.90	1.20	-	-

자료: 데이터모니터

<냉장 품목별 금액 변화(2003-13)>



<냉장 품목별 물량 변화(2003-13)>



● 냉장 어류·해산물 선도업체: '아이스-로지스틱' (비중 29.8%), 피셔리 베이스(17.6%) 등임

<냉장어류·해산물 브랜드별 판매규모 및 비중>

(단위: 백만 루블, %)

회 사 명	브 랜 드	2007		2008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아이스-로지스틱	블루 화이팅	11,523.20	29.8	11,788.50	29.8
JHC 나호드카 액티브마린	-	-	-	-	-
피셔리 베이스	종 합	6,794.40	17.5	6,973.10	17.6
산타 브레모르 JV	종 합	1,904.40	4.9	1,891.70	4.8
자체브랜드	자체브랜드	2,159.40	5.6	2,252.10	5.7
기 타	기 타	16,352.10	42.2	16,687.90	42.1
합 계	-	38,733.60	100	39,593.30	100

자료: 데이터모니터

❑ 냉동 어류 · 해산물



- 시장규모: 2008년 금액기준 16,899.9백만 루블(661.3백만 달러)로 집계(2003년~2008년간 연평균성장률 6.4%), 물량 기준 122.2백만 kg 집계(1.9%)
- 전망: 2013년 말경 21,669.2백만 루블(847.9백만 달러)로 전망(2008년~2013년간 연평균성장률 5.1% 예상), 134.1백만 kg로 전망(1.9%)

- 시장점유율(금액기준): 날생선(37.9%), 빵가루입힌 어류·해산물(32.5%), 날해산물(24.8%), 기타 어류/해산물(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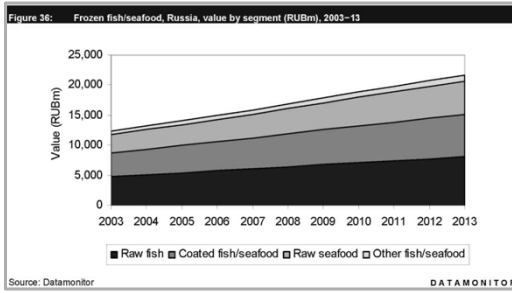
<러시아 냉동 어류·해산물 시장규모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백만 kg,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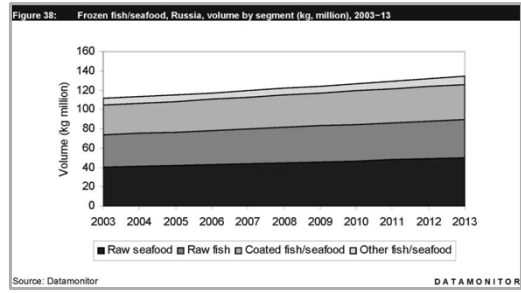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성장률 (2008-2013)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날생선	250.7	45.3	264.5	46.1	278.9	46.9	291	48	303.4	48.9	315.8	49.8	4.70	1.90
빵가루입힌 어류·해산물	214.7	36.4	227.5	37	239.6	37.9	251.8	38.5	264.2	39.3	276.7	40	5.20	1.90
날해산물	163.8	33.3	175.7	33.8	186.2	34.6	195.4	35	204.6	35.7	213.8	36.3	5.50	1.70
기타 어류/해산물	32.1	7.2	34.1	7.4	36.2	7.5	38	7.7	39.8	7.9	41.6	8.1	5.30	2.20
합계	661.3	122.2	701.8	124.3	740.9	127	776.1	129.3	812	131.7	847.9	134.1	5.10	1.90
성장률	6.30	2.00	6.10	1.70	5.60	2.20	4.70	1.80	4.60	1.90	4.40	1.90	-	-

자료: 데이터모니터

<냉동 품목별 금액 변화(2003-13)>



<냉동 품목별 물량 변화(2003-13)>



- 냉동 어류·해산물부문 선도업체: ‘메리디안 그룹’ (비중 22.1%), 델라마리스(14.2%), 료도보 그룹(9.8%) 등

<냉동어류·해산물 브랜드별 판매규모 및 비중>

(단위: 백만 루블, %)

회 사 명	브 랜 드	2007		2008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메리디안 그룹	메리디안	3,494.30	22	3,735.50	22.1
델라마리스	종 합	2,256.50	14.2	2,392.70	14.2
료도보 그룹	살 문	1,540.70	9.7	1,656.60	9.8
노르드 웨스트 F.C.	노르드웨스트	1,365.50	8.6	1,462.60	8.7
JSC INCO	마리솔	1,373.40	8.6	1,446.60	8.6
프로드코	칼루리	583.3	3.7	638.3	3.8
자체브랜드	자체브랜드	2,518.30	15.8	2,688.20	15.9
기 타	기 타	2,770.30	17.4	2,879.50	17
합 계	-	15,902.40	100	16,899.90	100

자료: 데이터모니터

❑ 어류·해산물 캔제품



- 시장규모: 2008년 금액기준 38,349.8백만 루블(1,500.6백만 달러)로 집계(2003년~2008년간 연평균성장률 -1.2%), 물량 기준 214.4백만 kg 집계(-2.1%)
- 전망: 2013년 말경 36,463.5백만 루블(1,426.8백만 달러)로 전망(2008년~2013년간 연평균성장률 -1% 예상), 188.7백만 kg로 전망(-2.5%)

- 시장점유율(금액기준): 참치(27.1%), 고등어(25.9%), 기타어류·해산물(25.1%), 연어(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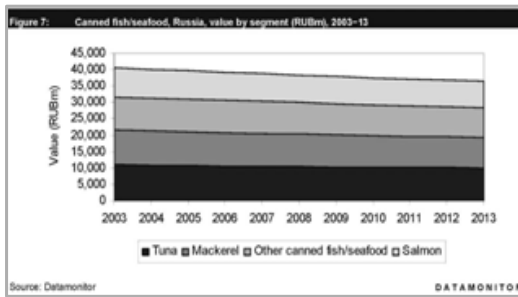
<러시아 어류·해산물 캔제품 시장규모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백만 kg,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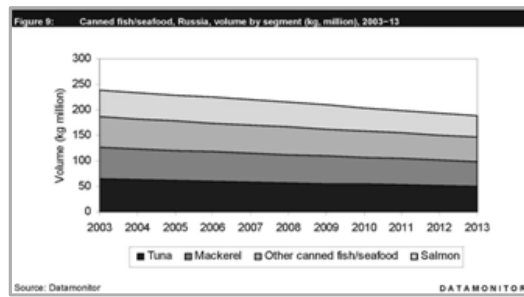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성장률 (2008-2013)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참 치	407	57.2	403.5	55.8	400.4	54.4	397.7	53	395.3	51.6	393.2	50.2	-0.7	-2.6
고등어	388.5	55.1	383.5	53.8	378.5	52.5	373.5	51.2	368.5	50	363.5	48.8	-1.3	-2.4
기타어류·해 산물	377.3	53.8	373.2	52.6	369.2	51.4	365.2	50.3	361.2	49.1	357.1	47.9	-1.1	-2.3
연 어	327.7	48.3	324.1	47	320.8	45.6	317.8	44.4	315.2	43.1	312.9	41.8	-0.9	-2.8
합 계	1500.6	214.4	1484.4	209.2	1468.9	204	1454.1	198.9	1440.1	193.8	1426.8	188.7	-1.0	-2.5
성장률	-1.1	-2.4	-1.1	-2.4	-1.0	-2.5	-1.0	-2.5	-1.0	-2.6	-0.9	-2.6	-	-

자료: 데이터모니터

<캔제품 품목별 금액 변화(2003-13)>



<캔제품 품목별 물량 변화 (2003-13)>



- 캔제품 부문 선도업.체: 개방주식회사 홀딩컴퍼니 'JSHC 달모레프로дук트'(비중 16.8%), '인테르 브플롯' (10.1%), '운다 피시 프로세싱' (9.2%) 순을 보임

<어류·해산물 캔제품 브랜드별 판매규모 및 비중>

(단위: 백만 루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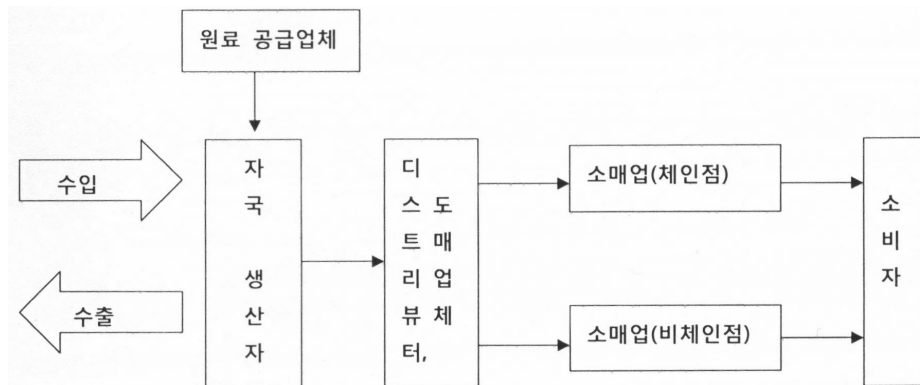
회 사 명	브 랜 드	2007		2008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JSHC 달모레프로дук트	달모레프로дук트	6,553.20	16.9	6,440.20	16.8
인테르 브플롯 Co Ltd	아크바마린	3,924.40	10.1	3,883.90	10.1
운다 피시 프로세싱 Co LLC	종합	3,549.20	9.2	3,513.30	9.2
알란타 LLC	알란타	2,379.00	6.1	2,356.60	6.1
인테르프로스티 Ltd	종합	2,215.10	5.7	2,238.50	5.8
TD 달프롬 바	종합	1,866.00	4.8	1,892.90	4.9
아타르도 ZAO	종합	1,640.50	4.2	1,622.30	4.2

회 사 명	브 랜 드	2007		2008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SNS	올리스	1,529.40	3.9	1,499.50	3.9
산타 브레모르 JV	브레모르	1,418.70	3.7	1,414.70	3.7
우크라이나-피시세르비스 Ltd	종합	1,350.10	3.5	1,342.10	3.5
달모레프로дук트 OJSC	5 모레이	903.3	2.3	896.2	2.3
우스트-캄차트 바 LLC	종합	827.8	2.1	823.9	2.1
베스포케 푸즈 Ltd	꼬네타블	829.7	2.1	822.7	2.1
발티스키 베레그 ZAO	종합	663.8	1.7	699.9	1.8
루스코예 모레 ZAO	7 우즐로프	589	1.5	614.3	1.6
MW 브랜즈	존 웨스트	560.2	1.4	562.4	1.5
산타 브레모르 JV	이크리마	495.3	1.3	521.8	1.4
H.J. 하인츠 컴퍼니	존 웨스트	N/A	N/A	N/A	N/A
자체브랜드(Private Label)	자체브랜드	3,254.70	8.4	3,260.80	8.5
기타	기타	4,234.30	10.9	3,943.70	10.3
합계	-	38,783.70	100	38,349.80	100

자료: 데이터모니터

다. 수산물 유통

<러시아시장 수산물 유통경로>



- 어류·해산물을 판매하는 주요 소매채널은 대형체인점(슈퍼마켓, 하이퍼마켓, 디스카운터), 중형мага진(상점), 시장, 정기시장, 소형소매점(파빌리온, 키오스크), 최근 발전하기 시작한 수산물전문상점체인 ‘오케안’ 등이 있음

- 그중에서 수산물(냉장, 냉동, 캔제품)의 57% 이상이 슈퍼마켓/하이퍼마켓에서 유통됨

< 수산물 유통채널별 비중 및 규모 >

구 분	유통 채널	금액기준 비중(%)		금액규모(백만루블)	
		2007	2008	2007	2008
냉장 어류 해산물	슈퍼마켓/하이퍼마켓	57.9	58.3	22,436.80	23,093.40
	독립 소매점	27.9	27.8	10,809.60	10,993.50
	편의점	5.1	5.2	1,992.20	2,057.80
	전문 소매점	4.2	3.8	1,609.30	1,509.90
	서비스 스테이션	3.7	3.7	1,414.10	1,460.90
	백화점(duty-free 상점 포함)	1.2	1.2	454.5	460
	캐쉬&캐리 및 회원제 할인매장	<0.1	<0.1	17	17.8
	전체	100	100	38,733.60	39,593.30
냉동 어류 해산물	슈퍼마켓/하이퍼마켓	58.6	59.1	9,318.00	9,994.70
	독립 소매점	28.4	28.2	4,512.60	4,771.90
	전문 소매점	5.9	5.4	935.4	917.6
	편의점	3.9	4	624.2	670.8
	서비스 스테이션	2.4	2.4	382.5	411.5
	백화점(duty-free 상점 포함)	0.8	0.7	122.1	125.2
	캐쉬&캐리 및 회원제 할인매장	<0.1	<0.1	7.5	8.2
	전체	100	100	15,902.40	16,899.90
어류 해산물 캔제품	슈퍼마켓/하이퍼마켓	57	57.3	22,119.20	21,985.40
	독립 소매점	27.6	27.4	10,723.30	10,494.10
	전문 소매점	5.8	5.7	2,236.60	2,183.70
	편의점	4.9	4.9	1,881.80	1,879.00
	서비스 스테이션	3.6	3.7	1,392.20	1,404.00
	백화점(duty-free 상점 포함)	1.1	1	415.4	388.3
	캐쉬&캐리 및 회원제 할인매장	<0.1	<0.1	15.3	15.3
	전체	100	100	38,783.70	38,349.80

자료: 데이터모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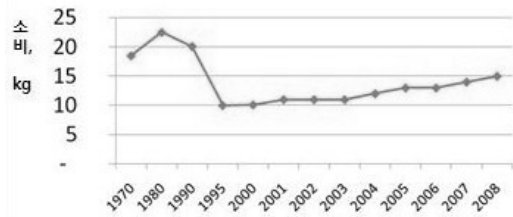
라. 수산물시장 소비동향, 소비특징

- 1995-2008년간 러시아에서 어류소비는 50% 증가되어 연간 1인당 소비는 10kg에서 15kg까지 성장함. 러시아에서 연평균 1인당 어류소비량은 유럽보다 몇 배나 낮으며 심지어 러시아의 1991년 지표보다도 낮은 상태임. 러시아의학아카데미 권장소비량은 연간 1인당 23.7kg임

< 러시아 연평균 1인당 어류·어류제품 소비량(kg) >

1970	1980	1990	1995	2000	2001	2002
19	23	20	10	10	11	11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1	12	13	13	14	15	15

자료: 연방통계청



- 러시아 정부의 ‘2020년까지의 러시아 사회경제 장기발전개념’에 따르면,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2007년 12.6kg에서 2020년 23.7kg으로 증가시키고, 소비구조에서 러시아산 어류 제품 비중을 67%에서 85%로 증가시키는 것임
- 현재 러시아수산업체는 국내시장으로 제품 공급을 증대시켰고 국내주민들의 어류 소비량도 증가하고 있음. 2009년 한해만해도 러시아에서 어류 소비는 30% 성장함. 경제위기 시기에 러시아 소비자들은 육류와 가금육보다 어류제품(특히, 저가대 어종)을 선호했으며 수입산보다 러시아산을 선호함
- 소비성장뿐만 아니라 수산부문관련문제를 해결하려는 국가정책도 수산부문발전을 촉진시키고 있음. 수산부문관련문제로는 총체적인 법적기반 부재, 밀렵, 기술설비기반 노후, 원료수출, 재수출, 증가하는 수입, 가격인상, 전문인력 및 과학연구개발 부재, 러시아인들의 어류제품·해산물 소비 미약 등이 있음
- 최근 정부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음
 - 2003-08년간 수산부문 상황을 규범화할 수 있는 일련의 법규(수생생물자원 보존 등)가 채택됨
 - 2003년에 정부는 “2020년까지의 수산업발전개념”을 개발, 채택했고, 2007년에는 양식업 발전이 국가계획안에 포함됨. 이와 관련하여 수산부문발전과 러시아어류시장 규모성장도 긍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또한, 국민들에게 저가의 어류를 공급하는 것을 정부의 임무로 보고 있음

<러시아 1인당 수산물 소비량 및 전망>

(단위: kg, %)

구분	카테고리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08-2013 연평균성장률
냉장	빵가루입힌 어류·해산물	1.8	1.8	1.9	1.9	2	2	2.7
	날해산물	1.8	1.8	1.8	1.8	1.8	1.8	0.6
	날생선	1	1	1.1	1.1	1.1	1.1	2.3
	합계	4.6	4.7	4.8	4.8	4.9	5	1.8
	성장률	2.1	2.0	1.9	1.8	1.8	1.7	-
냉동	날해산물	0.3	0.3	0.3	0.3	0.4	0.4	2.4
	날생선	0.3	0.3	0.3	0.3	0.3	0.3	2.4
	빵가루입힌 어류·해산물	0.2	0.2	0.2	0.3	0.3	0.3	2.2
	기타 어류·해산물	0.1	0.1	0.1	0.1	0.1	0.1	2.7
	합계	0.9	0.9	0.9	0.9	1	1	2.4
캔제품	성장률	2.5	2.1	2.6	2.3	2.4	2.4	-
	참치	0.4	0.4	0.4	0.4	0.4	0.4	-2.1
	고등어	0.4	0.4	0.4	0.4	0.4	0.4	-1.9
	기타 어류·해산물	0.4	0.4	0.4	0.4	0.4	0.3	-1.9
	연어	0.3	0.3	0.3	0.3	0.3	0.3	-2.4
합계	1.5	1.5	1.5	1.4	1.4	1.4	-2.1	
성장률	-1.9	-2.0	-2.0	-2.0	-2.1	-2.1	-	

자료: 데이터모니터

<러시아 1인당 수산물 지출비용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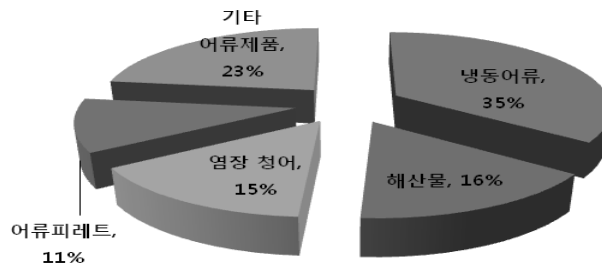
(단위: 달러, %)

구분	카테고리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08-2013 연평균성장률
냉장	빵가루입힌 어류·해산물	4.4	4.6	4.8	4.9	5.1	5.3	3.6
	날해산물	3.8	3.9	3.9	3.9	3.9	4	0.7
	날생선	2.8	2.9	3	3	3.1	3.2	3.1
	합계	11	11.3	11.6	11.9	12.2	12.5	2.5
	성장률	2.7	2.7	2.6	2.5	2.4	2.4	-
냉동	날해산물	1.8	1.9	2	2.1	2.2	2.3	5.2
	날생선	1.5	1.6	1.7	1.8	1.9	2	5.7
	빵가루입힌 어류·해산물	1.2	1.3	1.3	1.4	1.5	1.6	6.0
	기타 어류/해산물	0.2	0.2	0.3	0.3	0.3	0.3	5.8
	합계	4.7	5	5.3	5.6	5.9	6.2	5.6
캔제품	성장률	6.8	6.6	6.1	5.2	5.1	4.9	-
	참치	2.9	2.9	2.9	2.9	2.9	2.9	-0.2
	고등어	2.8	2.7	2.7	2.7	2.7	2.6	-0.9
	기타 어류·해산물	2.7	2.7	2.6	2.6	2.6	2.6	-0.6
	연어	2.3	2.3	2.3	2.3	2.3	2.3	-0.5
합계	10.7	10.6	10.5	10.5	10.4	10.4	-0.5	
성장률	-0.6	-0.6	-0.6	-0.5	-0.5	-0.4	-	

자료: 데이터모니터

- 러시아 소매유통에서 전통적으로 소비자수요가 높은 어류제품은 냉동어류(35%), 해산물(16%), 염장청어(15%), 냉동어류 피레트(11%), 건조어류 및 캐비아 등의 기타어류제품(23%) 순으로 나타남
- 소비자 선호와 소비는 가족소득수준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음. 냉동어류는 러시아전체주민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품목이며, 특히 월평균 소득 1만 루블 미만의 소비자층에게 가장 인기있는 냉동어류는 중간가격대 어종인 대구와 명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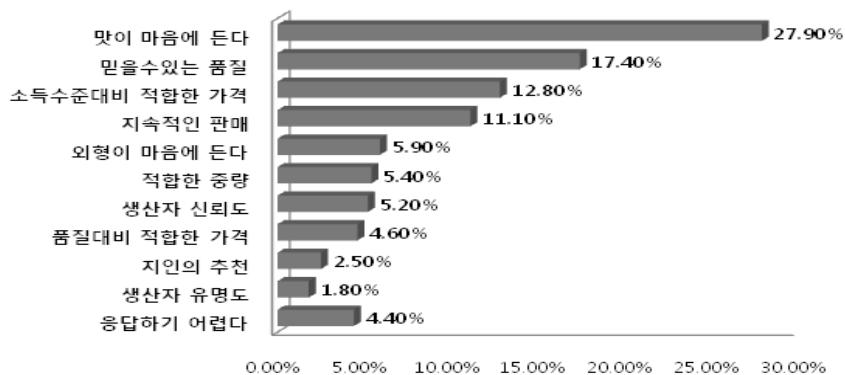
<러시아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어류제품 종류(2006)>



자료: 아르마르카

- 현재 러시아에서는 어류·해산물 소비가 증가세를 보이며 이는 삶의 질적 향상을 보여주는 한 측도라 할 수 있음
- 경제적인 어종 구매 시에 소비자들에게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는 가격임. 그러나 최근 들어 값비싼 참치 등 고급매장인 델리카테센(delicatessen)의 소비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이 경우 가격보다 맛 선호도가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함

<러시아 소비자들의 포장된 어류제품 브랜드 선별 기준(2005)>



자료: 러시아식품시장

- ❑ 온마리 통째로 냉동한 어류 소비보다 다양한 종류의 피레트 소비가 빠른 성장세를 보임. 이와 같은 시장상황에 맞춰 ‘루스코예 모레’ 사는 2007년에 자체 브랜드 ‘루스코예 모레’ 로 민대구, 팡가시우스, 킬라피아, 명태 피레트를 출하·판매하였으며, 연방 및 지역 유통체인점에 적극적으로 진출시킨 바 있음
- ❑ 러시아에서 주로 소비되는 어류는 여전히 비싸지 않은 가정식탁용 어종(대구, 명태 등)이며, 앞으로도 소비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 주민 소득 증가로 인해 값싼 어종을 소비하던 소비자들도 새로운 비싼 어종(예를 들어, 참치)을 소비할 잠재성이 높음

마. 경제위기 이전 트렌드

- ❑ 경제위기 이전 시기(2008년 3분기 이전)에 러시아 어류·해산물시장에서 소비성격은 조제품과 최소조리시간을 요하는 제품군으로 이동되는 움직임이 관찰됨. 소비자수요에서 주요 트렌드는 프리미엄 세그먼트에 대한 관심 증가임
- 붉은살 생선(연어, 무지개송어)과 캐비아(붉은살 생선 및 기타 어류의 캐비아)는 2008년 3분기 전까지 가장 급속도로 성장하는 어류·해산물조제품시장 중의 하나였음

<연어류>



<캐비아>



- ❑ 이와 같은 소비 트렌드를 보이는 이유는 2000년대 초 러시아주민들의 소득이 증대되고 부족한 시간에도 건강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요소들은 고가 세그먼트의 발전을 촉진시킴
- 경제위기 이전 시기에는 이와 같은 트렌드에 대한 응답으로 어류제품·해산물제품 생산 시에 품질에 가장 중점을 두었고 상점 진열대에는 품질이 좋은 고가의 원료로 만든 어류·해산물 조제품으로 가득참음

- 해산물 소비증가도 역시 경제위기 이전의 트렌드임. 게다가 이 부문에서 러시아시장은 2-2.5년 정도 늦게 유럽시장 트렌드를 반복하고 있음. 다른 부문에서는 유럽시장과 러시아시장을 비교 시에 특징적인 차이점을 알 수 있음
- 유럽 상점 진열대에는 높은 소비특징을 보이는 어류·해산물제품(예를 들어, 포장된 신선어류)이 많고 서구에서 캐비아는 소비문화 차이로 인해 러시아보다 적게 소비되고 있음
- 러시아 시장에서 유통체인점 비중은 상대적으로 그리 높지 않은 편이나(27%), 독일만 해도 80% 이상에 이르고 있음. 서구에서 프라이빗 브랜드(유통업체 자가상표, 자체브랜드)는 널리 보급되어 있으나, 러시아 시장에서 그 비중은 낮은 편임. 하지만 러시아시장에서 유통체인점들의 비중 증가는 어류·해산물제품 판매문화를 향상시키고 제품수요를 높이고 있음

<냉장 해산물 >



<냉동 새우 >



- 러시아 국내에서 어류·해산물시장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프리미엄급 제품 소비비율이 높음. 예를 들어, 붉은살 생선은 어류시장의 40%를 차지하며, 붉은살 생선 캐비아는 35%를 차지함
- 프리미엄 세그먼트가 증가하는 트렌드는 대도시들과 개발지역들에서 관찰됨
- 저개발지역들 소비자는 훨씬 더 저가의 제품을 선호함. 어류·해산물 조제품시장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청어(35%)이며, 그다음 밀폐용기에 담은 제품, 미역 등의 순을 보임
- 수입산 냉장어류 소비지역은 주로 러시아중앙(북서)지역에서 성장세를 보이며(2000년 냉장어류소비비중 25%→2007년 40%로 증가), 대부분 노르웨이, 덴마크, 스페인 등에서 수입되고 있음
- 수입산 냉동어류 소비지역은 북서지역(50%), 시베리아지역(39%), 불가지역(2%), 기타지역(9%) 등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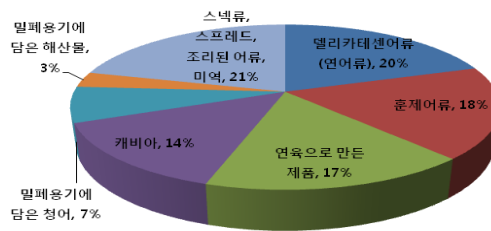
- 어류·해산물시장에서 가격형성은 원료구성(어류·해산물 어획량, 지역-공급자)에 의존하는 특징을 보임. 풍어시즌에는 안정적인 수준의 가격대를 유지하지만, 원료 부족 시에 가격은 현저히 인상될 수 있음
- 원료의 경우, 최근 십년간 수입원료시장이 현격히 확대됨. 연어류의 주요 공급국은 노르웨이이며(연어, 무지개송어, 고등어, 청어), 또한 어류와 해산물은 중국, 베트남, 페루, 칠레 등의 국가에서 공급되고 있음. 하지만 원료시장에서는 정치적, 경제적, 자연적 요소들로 인해 항상 원료공급 중단 혹은 혼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

바. 경제위기 이후 트렌드

- 경제위기는 제품종류 선정정책을 수정하게 만들
 - 위기 후 생산자들은 시장에서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해 출하된 제품종류를 저가 제품군으로 확대시키고 있음
 - 유통체인점들도 시장추세에 맞춰 적당한 가격대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안하고 자체 브랜드 종류를 적극적으로 개발함
- 경제위기 후 일 년 반 사이 프리미엄급 제품들은 시장에서 장기침체를 보이거나 혹은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기 시작함. 이와 반대로 대중적 수요를 보이는 제품들(청어, 킬카(kilka), 미역 등 100루블 이하 가격대)은 그리 나쁘지 않은 판매량을 보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인 것이며 향후 경기회복과 더불어 프리미엄 제품 선호는 불경기 이전 상태로 되돌아올 것으로 예상됨
- 총체적으로 수산부문이 식품산업부문들 중 경제위기 영향을 적게 받은 부문으로 치부하는 것은 옳지 않음. 왜냐하면 일용품 구입에 있어서 중간소비자층에게 어류·해산물은 빵, 우유, 육류, 설탕, 밀가루, 곡물과는 달리 필수구입품이 아닌 사실도 고려해야 함
- 경제위기는 유통업체들에도 영향을 미침. 현재 유통체인점들은 프라이빗 브랜드 중에서 입찰을 실시하여 훨씬 더 저가의 제품들을 선호하고 있음. 즉, 이는 품질이 낮은 제품이 입찰될 수도 있음을 의미함
- 현재 소비자들은 훨씬 더 경제적으로 변하여 각종 할인 및 판촉행사에 주목하고 있음. 그 결과 5배-10배가량 판매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가격에 주목하고 있음

- ❑ 어류가공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달러환율 인상임. 보통 환율변동은 제품원가에 반영되며 가공업체는 수입산보다 자국산 원료를 선호할 수밖에 없음. 하지만 수산부문은 수입원료와 수입패키지(포장) 의존성이 아직 높음. 전반적으로 러시아산 제품은 붉은살 생선 캐비아, 청어, 넙치 정도에 불과함.
- 이는 루블 환율 하락이 바로 수입산 어류·해산물 가격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현상은 경제위기결과 실제 발생되었음. 또한 수입산 포장재료 가격의 변동성도 관련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러시아 어류·해산물 조제품시장 세그먼트(2008-09)>



자료: 국제산업포털 MPP

<조리된 어류>



<훈제 어류>



❑ 전망

- 활발히 성장하는 붉은살 생선 소비트렌드는 최근 4년간 관찰되고 있고 이러한 동향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2010-11년에 붉은살 생선의 캐비아 소비는 2010년 시즌 조업승패 및 어획량, 원료가격에 직접적으로 의존하고 있음
- 밀폐용기에 담은 청어 피레트 시장에서는 최근 3년간 침체현상을 보임. 게맛살(크랩 스틱과 크랩 미트), 해산물 세그먼트는 소폭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시장 분석가들은 총체적으로 시장이 10%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신선 게맛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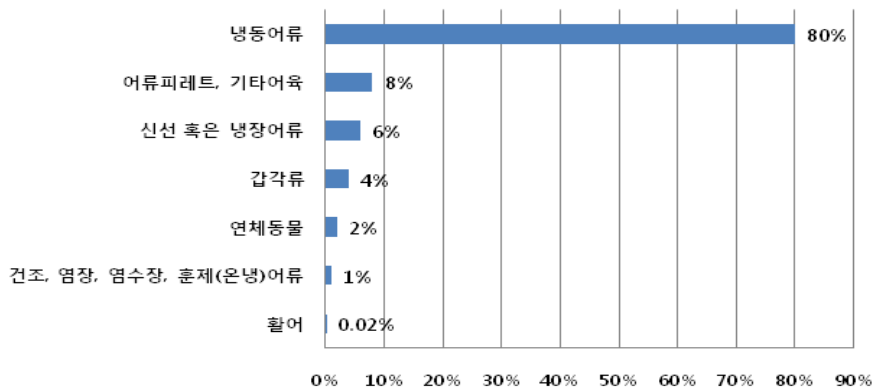
<밀폐용기에 담은 청어 피레트>



사. 러시아산과 수입산 간의 상관비율

- ❑ 2010년 기준, 수입산 어류 및 어류제품의 대러 공급규모는 3,122,451달러, 2,055,692톤으로 집계됨
- 2010년 러시아의 어류 및 어류제품 수출규모는 2,293,926달러, 1398320톤
- ❑ 러시아 해산물시장규모는 연간 200-250천 톤으로 집계되며, 그중 수입비중은 40-50%임. 특히 새우의 경우 수입산 비중은 90%까지 이르고 있음

<어류·해산물 수입구조 (2010년 물량기준)>



자료: 피쉬리테일

<러시아 어류 및 해산물 수출입동향>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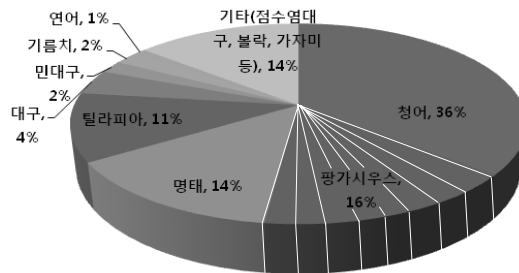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무척추동물(백만달러)	1,449	645	1,835	958	2,003	1,207	2,216	1,739	2,416	2,036	2,189	1,700
그중:												
- 신선·냉장어류(어류피레트제외) (천톤)	45.1	35.3	21.7	50.1	3.3	30.0	2.6	64.4	1.8	78.6	1.7	89.9
- 냉동어류(어류피레트제외) (천톤)	1,042	585	1,184	658	1,193	556	1,164	637	1,204	553	1,237	527
- 어류피레트, 기타어육(신선·냉장·냉동) (천톤)	49.3	62.2	59.4	78.9	68.2	101	56.0	169	68.1	250	54.5	178
- 건조·염장·염수장어류 (천톤)	16.2	13.0	8.2	20.9	9.1	23.4	9.7	24.4	9.5	20.2	10.7	11.0
- 산·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염수장 갑각류 (천톤)	26.9	35.4	25.7	45.6	26.9	46.6	31.2	68.3	27.7	65.8	29.8	52.6
-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천톤)	11.4	8.0	12.1	10.8	17.8	17.4	16.5	17.6	13.9	35.3	15.4	14.8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로 만든 조제품 (백만달러)	106	239	153	303	159	350	205	426	273	564	170	458
그중:												
- 어류 조제품·캔제품, 철갑상어캐비아, 캐비아 대응품 (천톤)	31.5	82.6	46.0	97.3	41.7	87.6	44.3	90.6	44.5	96.3	20.8	73.0
-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조제품·캔제품 (천톤)	2.6	8.2	3.8	10.9	1.5	8.1	2.8	10.5	4.3	13.2	0.6	8.8

자료: 연방통계청

- 러시아 국내시장에서 수입산과 러시아산 제품 간의 상관비율은 평균적으로 40% : 60%이며 (2009년 기준, 30% : 70%로 나타남), 일부 지역들에서는 50% : 50%를 보이기도 함. 러시아정부의 식품안전정책에 따르면, 이 비율을 20% : 80%까지 수정하는 것임
- 그러나, 대체적으로 소비자들은 정부의 식품안전정책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소득에 맞춰 어류와 해산물 종류를 선택하며, 이러한 시장수요는 어류제품 반입 및 반출구조에 영향을 주게 됨. 따라서 수입 자체는 소비자들이 실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려주는 측도라 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러시아어민들이 어획한 명태의 절반 이하가 국내시장으로 유입되는데, 그 이상은 소비되지 않기 때문임. 수입산과 러시아산 명태제품의 상관비율은 12% : 88%임
- 게다가 수입산 명태는 대부분 낱개로 개별 냉각시킨 중국산 피레트임. 블록형으로 냉각시킨 러시아산 명태 피레트는 전체 반입되는 명태의 약 2.7%에 불과하고, 개별 냉각시킨 러시아산 피레트는 0%임
- 소매업체는 개별 냉각시킨 피레트를 선호하고 있음. 아직 러시아 국내에서는 가공인프라의 부족으로 중국산을 대체할 능력이 안 되는 실정임. 수입산 제품에서 얼음막 비율을 제한시키는 어류 피레트 기술규정으로 인해 제품가격만 인상되고 있음
- 어류 피레트 전체 수입규모에서 청어피레트(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러시아) 36%, 팡가시우스피레트(베트남) 16%, 명태피레트(중국) 14%, 틸라피아피레트(중국) 11%, 대구피레트(러시아) 4%, 나머지(민대구, 기름치, 연어, 볼락, 가자미, 점수염대구 등) 19% 차지

<어종별 어류 피레트 비중(2010)>



자료: 겔프스트림

- 러시아인들이 선호하는 청어(러시아시장내에 존재하는 냉동어류 전체규모에서 거의 4분의 1을 차지)의 경우, 연간 상황이 변화되고 있음
- 7월~9월간 러시아산 청어 반입규모와 수입산 간의 상관비율은 88% : 12%임
- 10월~11월~12월에는 러시아산과 수입산이 56% : 44%임. 가을·겨울철에 청어는 대서양서부수역으로 이주하며 이곳에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발틱국가들이 청어를 어획하여 러시아시장으로 공급하고 있음
- 소비자에게 중요한 점은 청어가 다른 수역으로 이주하여 다른 국가의 어민들이 청어를 어획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높은 지방함량과 맛있는 생선살의 체철청어인가 하는 것임

- 청어피레트 수입의 경우, 도매무역업체들은 밀폐용기에 담은 제품과 캔제품을 만드는 생산자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들여오고 있음. 생산자들은 노르웨이산과 아이슬란드산 청어피레트를 선호하는데, 왜냐하면 사이즈별, 종류별로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어 가공과정에서 손실과 지출이 적기 때문임
- 소비자들의 제품 선별 시 결정적인 요소: 가격, 품질, 맛
- 제품 가격에 민감한 러시아 소비자들은 최근 제품 품질과 맛에 적지 않게 주목하고 있음. 예를 들어, 저렴한 노르웨이산 연어와 칠레산 무지개송어 반입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대서양연어는 거의 100%가 수입산임. 노르웨이 양식연어제품이 러시아시장으로 공급되고 있음. 아직 러시아에는 연어양식장이 없으며 무지개송어 양식경험만 있으나 시장을 충족시킬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이 틈새시장은 오직 수입산으로만 충당되고 있음. 러시아산 야생 연어류인 곱사송어는 100% 자국산 공급임
- 현재 소비자는 저가의 어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어류를 저가에 구입하기를 원하고 있음

아. 수산물 계절별 소비형태 및 품목

■ 주요 어종 조업시기

- 명태 : 오호츠크 해역 1월 초순~4월 초순, 캄차트카 해역 2월 중순~3월 말, 북오호츠크 해역 3월 중순~4월 초순
- 연어 : 캄차트카 해역 및 마가단 해역 등 극동어장 6월~9월경, 마가단 주 6월~10월 중순
- 꽁치 : 극동어장 7, 8월~9, 10월경
- 가자미 : 북해와 바렌츠해 7월~12월경
- 넙치 : 그린란드넙치는 베링해, 바렌츠해, 오호츠크해에서 연중, 대서양넙치는 베링해에서 4월~12월경, 태평양넙치는 서베링해, 동부캄차트카, 북부쿠릴해역에서 연중
- 고등어 : 대서양고등어는 북대서양해역에서 4월~11월경, 일본(태평양)고등어는 쿠릴열도해역에서 9월~12월경

☐ 주요 수입산 수산물 공급시기 및 소비형태

어종	학명	소비형태 (용도)	사이즈	공급형태	냉각(가공)방법	공급시기	공급자	서식지
흰살 생선								
명태	Theragra Chalcomgramma	가정용, 구이, 밀가루 입혀 구이, 증기처리	피레트(6-8, +8은스), 카르카스(22+, 25+, 30+cm 혹은 L, M, XL)	피레트, 카르카스	개별, 블록	1-5월, 8-11월	러시아 동식물검역국 수출등록업체	북태평양
넙치	Hippoglossus Hippoglossus	훈제	2-3kg, 3+kg, 5+kg	카르카스(머리제거), 일본식 절단	선상냉각, 연안	-	러시아 동식물검역국 수출등록업체	북태평양, 북미서부연안, 북대서양, 바렌츠해, 일본해, 오후츠크해, 베링해
민대구	Merluccius Hubbsi	가정용, 구이, 밀가루 입혀 구이, 증기처리	카르카스(100-300, 300-500, 500-800), 피레트(6-8, 8+)	카르카스(머리제거, 내장제거), 피레트	-	-	러시아 동식물검역국 수출등록업체(스페인, 아르헨티나, 캐나다, 미국, 중국)	북미연안
호키	Macruronus Magellanicus	가정용, 구이, 밀가루 입혀 구이, 증기처리	피레트(60-90, 100-300, 300-500, 500-800)	카르카스(머리제거, 내장제거), 껍질있는 피레트	-	-	러시아 동식물검역국 수출등록업체(스페인, 칠레,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기름치	Lepidocybium Flavobrunneum	훈제	1-2, 2-4, 4-7, 7+	카르카스, 피레트	-	-	러시아 동식물검역국 수출등록업체	북서대서양, 에콰도르, 남서대서양(브라질~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매켈빙어	Chapsocephalus Gunnari	가정용, 구이	150-250, 250+	카르카스 온마리(머리있음)	선상냉각	-	러시아 동식물검역국 수출등록업체	칠레, 포클랜드섬
브로톨라(대구의 일종)	Salilota Australis	가정용	200-300, 300-500, 500-800, 800+	카르카스(머리제거, 내장제거)	-	훈회	러시아 동식물검역국 수출등록업체(스페인, 칠레, 아르헨티나)	남동태평양, 남서대서양
노토 테니아	Patagonotothen Ramsayi	가정용, 구이, 밀가루 입혀 구이, 증기처리	70-150, 80-200	카르카스(머리제거, 내장제거)	-	-	러시아 동식물검역국 수출등록업체(스페인, 칠레, 아르헨티나)	남미남부
대구	Gadus Morchua	가정용, 스텍 생산	1-2kg	카르카스(머리, 내장제거), 건조	선상냉각	3-5월	러시아 동식물검역국 수출등록업체	
대서양 붉은볼락	Sebastes Marinus	-	-	카르카스(머리제거), 일본식 절단	-	-	러시아 동식물검역국 수출등록업체	노르웨이해, 북빙양

어종	학명	소비형태 (용도)	사이즈	공급형태	냉각(가공)방법	공급시기	공급자	서식지
그레 나데르 (대구의 일종)	Coelorrinchus Fasciatus	가정용, 구이, 밀가루 입혀 구이, 증기처리	100-200	카르카스(머리 제거, 내장제거)	-	-	러시아 동식물검역국 수출등록업체	남반구
유럽 뱀장어	Anguilla Anguilla	훈제	-	머리와 함께 구이한것(내장 제거), 개별냉각	-	연중	러시아 동식물검역국 수출등록업체	-
가자미	Pleuronect Platessa	가정용, 구이, 밀가루 입혀 구이, 증기처리	-	-	-	-	-	대서양, 지중해, 북해, 아조프해, 흑해
팡가 시우스 (메기과)	Pangasius Hypophthalmus	가정용, 구이, 밀가루 입혀 구이, 증기처리	170-220g, 220+g	피레트	개별냉각	연중	러시아 동식물검역국 수출등록업체 (베트남)	베트남
얼룩메기 (메기과 하천생선)	Ctaluruspunctatus	가정용, 구이, 밀가루 입혀 구이, 증기처리	2-3, 3-5, 5-7, 7-9, 9-11, 11-13온스	피레트	개별냉각	연중	러시아 동식물검역국 수출등록업체 (중국)	중국, 미국
틸라피아 (민물)	Tilapia Nilotica	가정용, 구이, 밀가루 입혀 구이, 증기처리	3-5온스, 5-7온스	피레트, 카르카스	개별냉각	연중	러시아 동식물검역국 수출등록업체 (중국)	중국

붉은살 생선

대서양 연어 (양식 대상)	Salmo Salar	훈제, 염장, 삶기, 구이, 증기처리, 그릴	0-14+kg	신선/냉동 카르카스(머리 있음, 내장제거), 피레트, 배살부위, 조각(piece)	pre-rigor, iceberg, IQF(개별냉각)	보호차원에서 조업시점 제한, 양식 연어는 연중판매	러시아 동식물검역국 수출등록업체 (노르웨이, 덴마크, 칠레, 페로즈제도, 스코틀랜드)	칠레, 태평양, 대서양, 캄차트카, 스코틀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페로즈섬
무지개 송어 (양식 대상)	Oncorhynchus Mykiss	훈제, 염장, 삶기, 구이, 증기처리, 그릴	0-7+kg	신선/냉동 카르카스(머리 있음) 혹은 냉동 카르카스(머리 유무), 내장제거, 피레트, 배살부위, 조각(piece)	pre-rigor, IQF(개별냉각)	양식은 연중판매	러시아 동식물검역국 수출등록업체	칠레, 덴마크, 페로즈섬, 노르웨이
곰사송어 (태평양 연어)	Oncorhynchus Gorbuscha	훈제, 구이, 증기처리, 염장, 캔제품	0-5, 5kg	냉동 카르카스 (머리유무), 내장제거유무, 피레트	-	7-9월	-	북빙양, 북태평양(블라 디보스토크~ 샌프란시스코)
왕연어 (태평양 연어)	Oncorhynchus tshawytscha	훈제, 염장, 삶기, 구이, 증기처리	중간사이즈 90cm, 대형 50kg까지	냉동 카르카스 (머리유무), 내장제거유무	-	5-6월	-	태평양 미국연안, 캄차트카강, 호카이도섬~ 아나디라 강
은연어 (극동 연어)	Oncorhynchus kisutch	훈제, 염장, 삶기, 구이, 증기처리	0-14kg	냉동 카르카스 (머리유무), 내장유무, 피레트	IQF	9-2월, 5-6월	-	-

어종	학명	소비형태 (용도)	사이즈	공급형태	냉각(가공)방법	공급시기	공급자	서식지
케타연어 (태평양 연어)	Oncorhynchus keta	염장	0-14kg. 어름(길이 80cm까지), 가을(길이 1m까지, 훨씬 크고 가치있음)	냉동 카르카스 (머리유무), 내장유무, 피레트	-	7-9월	-	북태평양 (아시아해안: 한국과 혼슈섬까지, 미국해안: 몬테레이만까지), 북빙양
부어(pelagic fish)								
블루 화이팅 (대구과)	Micromesistius	삶기, 구이, 간장은 내추럴 캔제품용으로 사용, 애완동물 사료로 이용	18cm, 22cm, 25+cm	냉동 카르카스 온마리	해상에서 수직냉각	3-4월, 11월	러시아 동식물검역국 수출등록업체	대서양 북부해역
대서양 청어	Clupea Harengus Harengus	염장, 훈제, 밀폐용기에 넣은 제품 생산	200-300g, 250+g, 300+g, 350+g, 400+g	냉동 카르카스 온마리 (머리유무), 껍질있는 피레트, 껍질없는 피레트, 플랩스(fleps) 피레트	해상냉각, 연안공장에서 냉각	9-2월	러시아 동식물검역국 수출등록업체	북대서양개방해역(북미연안), 스코틀랜드, 노르웨이, 북대서양개방해역(북유럽 연안), 러시아
태평양 청어(극동 청어)	Clupea Mirabilis	염장, 훈제, 밀폐용기에 넣은 제품 생산	22-30cm	냉동 카르카스 온마리 (머리있음)	선상냉각	11-4월	극동업체-트레이더와 생산자	북태평양
고등어 (대서양 고등어)	-	훈제	200-400g, 300-500g, 400-600g, 600+g	냉동 카르카스 (머리유무, 내장있음)	에어냉각(손질 하지 않은것), klipfisk 피레트, 개당 피레트, 머리제거, 내장제거(선택에 따라 개별냉각), 해상에서 수직컨택냉각	9-1월	러시아 동식물검역국 수출등록업체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코틀랜드
아틀랜틱 호스 마크렐	Trachurus Trachurus	훈제, 구이, 증기처리	600+g, 1+kg	냉동 카르카스 온마리 (머리있음)	선상에서 컨택냉각	아열대와 열대에는 연중, 온대는 따뜻한 계절에만	러시아 동식물검역국 수출등록업체	대서양, 지중해, 북해, 발틱해서부
열빙어 (카펠린)	Mallotus Villosus	훈제	kg당 50-60개, 45-55개, 40-50개, 35-45개, 30-40개, 25-35개, 20-30개	냉동 카르카스 온마리	해상에서 컨택냉각, 해안공장에서 에어냉각	2-3월	러시아 동식물검역국 수출등록업체	북태평양, 북미연안, 북대서양, 그린란드연안, 노르웨이해, 바렌츠해, 북극
킬카	Sprattus Sprattus	캔제품(킬카, 안초비, 쉬프르트), 훈제, 염장, 염수장	9-12cm	냉동 카르카스 온마리 (머리있음)	해상에서 컨택냉각, 해안공장에서 에어냉각	1월, 6-12월	러시아 동식물검역국 수출등록업체	발틱해, 카스피해

어종	학명	소비형태 (용도)	사이즈	공급형태	냉각(가공)방법	공급시기	공급자	서식지
해산물								
홍다리 얼룩새우	Panaeus Monodon	가정용, 레스토랑용	13/15, 16/20, 21/25, 26/30	날것, 삶은것과 데친것, 개별냉각, 블록냉각, 머리유무, 껍질제거, 꼬리유무(HOSO, HLSO, PDT0)	-	-	러시아 동식물검역국 수출등록업체	방글라데시, 베트남
바나메이 새우 (여왕 새우)	Panaeus Vannamei	가정용, 레스토랑용	CHOSO(30/50, 40/60, 60/70), HLSO(26/30, 31/40, 41/50)	HOSO, HLSO, CPD, CPD0-raw, blanched 혹은 cooked	-	-	러시아 동식물검역국 수출등록업체	에콰도르, 태국, 중국
북쪽분홍 새우 (한류성 새우)	Pandalus Borealis	가정용, 레스토랑용	50/70, 70/90, 90/120, 120/150	HOSO, C&P-raw, cooked	5-9월	-	러시아 동식물검역국 수출등록업체	캐나다
오징어	Teuthida	샐러드, 해산물스프, second meal	U5-U10	카르카스, 링, 껍질제거	-	-	러시아 동식물검역국 수출등록업체	오호츠크해, 아시아국, 해역(베트남, 중국, 일본 등)
가리비과	Pectinidae	second meal과 샐러드용, 프랑스음식에 많이 이용, 날것으로 이용가능	10-20, 20-30, 30-40 per pound	날것 개별 급속냉각	-	-	러시아 동식물검역국 수출등록업체	인도양, 대서양, 태평양, 북빙양, 남빙양
홍합	Mytilus	샐러드, 해산물스프, second meal, 피자	kg당 100-200개, 200-300개, 300-500개	홍합살, 껍데기제거, 삶은것, 개별냉각	11-2월	-	러시아 동식물검역국 수출등록업체	-
갑오징어	Sepiida	샐러드, 해산물스프, second meal, 피자	주로 해산물 칵테일 성분중의 하나로 납품	-	-	-	러시아 동식물검역국 수출등록업체	-
문어	Octopus	샐러드, second meal	kg당 41-60개, 61-80개	어린문어, 냉동, 손질한것, 꽃형태로 개별냉각 혹은 자연스러운형태로 개별냉각	9-12월	-	러시아 동식물검역국 수출등록업체	페루, 베트남, 중국

자. 한국산 수산물 유통 및 소비동향

- ❑ 9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게맛살, 다시마, 조미오징어, 김 등의 한국산 수산물이 러시아에 유통되었으며 러시아 소비자들의 반응도 좋은 편이었으나 현재 김을 제외하고 수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 러시아로 수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동식물검역국에 승인받은 러시아수출등록업체 명단에 올라와 있어야 함. 현재 등록된 한국업체는 COSIS, 대상, 우일, 유성물산 등 총 4개 업체에 불과하고 수출 가능한 품목은 4개 업체 모두 김과 미역, 이를 원료로 만든 제품에 한정되어 있음
- ❑ 한국산 조미김과 마른김의 경우, 현재 러시아 내 대형유통매장, 중형마트, 한인마트 등의 판매대에 진열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맛과 품질이 뛰어나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슈퍼마켓 >



<하이퍼마켓 >




- ❑ 러시아에서 스낵류로 분류되는 조미김은 한국산의 가격대가 다소 비싼 편이긴 하나(절지 8매 들은 1봉에 약 23.8루블에 거래),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의 대도시에서는 러시아 주민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 러시아에서 유통되는 한국산 조미김은 동원의 '시부키' (오리지널, 인삼맛, 와사비맛, 칼슘강화), 진현식품 '미도리', 바다원의 '재래김', 진양식품 '돌김' 등이 있음
- 한국식 반찬용 조미김은 러시아에서 맥주안주 용도로 소비되며 일본산, 중국산 등과 경쟁하고 있음
- ❑ 스시김의 경우 러시아 내 일식문화 유행으로 인해 소비자 관심도와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산, 일본산, 중국산이 대형유통매장, 일식전문상점, 한인마트, 아시아음식전문상점, 개방시장, 인터넷 주문판매점 등에서 유통되고 있음
- 한국산 스시김은 가공기술과 품질, 맛이 뛰어나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차. 기타: 수산물 프랜차이즈 업체종류, 초밥 친숙정도 등

수산물 프랜차이즈 업체

로 고	업체명	업 체 설 명
	바사비 (와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랜차이즈 일식레스토랑체인점 - ‘바사비’ 그룹은 러시아북서지역 요식업체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대형레스토랑홀딩임. 일식레스토랑 ‘바사비’ 29개, 스시바 ‘바사비코’ 5개, 이탈리아레스토랑 ‘로자리오’ 5개, 일식 비스트로 ‘쿠사이 스시’ 등 소유 - 입회금: 1,075천 루블 - 투자금: 8백만 루블부터 - 로열티: 매월 매출액에서 4% - http://www.wasabico.ru/
	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랜차이즈 일식카페체인점 - 러시아시장에서 대형레스토랑홀딩 중의 하나인 ‘베스타-센터 인터내셔널’ 레스토랑 연합(1996년 설립)의 관리 하에 있음 - 입회금: 150천 달러 - 투자금: 600천 달러부터 - 로열티: 매월 매출액에서 7% - http://www.menza-lapsha.ru/
	말렌카야 야포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랜차이즈 일식카페체인점(폐쇄주식회사 ‘란치’) - 입회금, 투자금: N/A - 로열티: 협의 - http://www.littlejapan.ru/
	스시 타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식음식 및 스시 생산·배달 체인점 - 입회금: 450천 루블 - 투자금: 1,200천 루블부터 - 로열티: N/A - http://www.sushitime.ru/
	우동야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에서 신개념의 저렴한 일식 패스트푸드. 일본에서 바로 진입해왔으며 회사설립자들은 일본전역에서 ‘하나마루 우동’ 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킨 경험 있음 - 입회금: 20천 달러 - 투자금: 200천 달러부터 - 로열티: 매월 매출액에서 5% - http://www.udonyasan.ru/
	칸파이 (간빠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시바체인점 - 동양레스토랑연합(2000년 설립)에 소속 - 입회금: 150천 유로 - 투자금, 로열티: N/A - http://xn--80aa1abls.xn--p1ai/

로 고	업체명	업 체 설 명
	야키 토리아	- 일식레스토랑체인점 - 일본문화 신봉자들을 위한 이상적인 장소 - 입회금, 투자금, 로열티: N/A - http://www.yakitoriya.ru/
	긴노타키	- 일식레스토랑체인점 -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일식레스토랑체인점 ‘요로-노 타키’ (약 2천개 업소)의 유사형태 - 입회금, 투자금, 로열티: N/A - http://www.ginnotaki.ru/
	플라네타 스시	- 일식레스토랑체인점 - 입회금: N/A - 투자금: 34천 유로부터 - 로열티: 매월 매출액에서 6% - http://www.sushiplanet.ru/

- 러시아에서는 90년대 중반에 일식음식(스시와 롤)이 고급레스토랑에 들어서면서 알려지기 시작했고, 스시바, 일식레스토랑체인점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거의 모든 소비자층이 맛볼 수 있을 정도로 유행하게 됨.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인들은 추운 겨울철에도 일식레스토랑 입구 앞 길거리에서 줄서서 기다릴 정도로 일식 붐이 일어남

- 일식음식이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가격보다 더 저렴한 상품이 요구되었음. 스시와 롤이 러시아 소비자들 사이에 유행될 것을 미리 예감한 샐러드 조제품 생산자들은 기존의 설비들을 이용하여 스시-롤 세트를 고안, 생산하여 대형유통매장들에 납품하기 시작함. 슈퍼마켓 등 소매유통매장들의 샐러드 판매코너에 투명한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스시세트가 판매되면서 더 이상 스시와 롤은 비싼 이국적인 음식이 아닌 서민들에게도 다가서게 됨

<하이퍼마켓 스시-롤 세트 판매 코너>



- ❑ 아직 러시아 전역에서 스시 붐이 일어난 것은 아니며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대도시와 대형유통매장들에 한정된 현상이기 때문에 러시아 스시시장은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높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스시 붐의 일례로, 올해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도 일식당 방문객 수는 줄어들지 않을 정도로 그 인기는 식지 않고 있음
- ❑ 현재 스시세트를 만드는 생산업체들은 ‘아리랑’ , ‘아틀란타’ , ‘옵티마-토르그’ , ‘칸파이’ , ‘진간’ 등이 있고 시장은 안정화되기 시작함

 - ‘아틀란타’ 사의 경우, 매달 약 2.5백만 개 이상을 판매하고 있고 이는 유통체인점에서 판매되는 스시세트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물량임. ‘아틀란타’ 사의 성공비결은 저렴한 스시세트로 시장을 공략했기 때문임(180루블 대부터 시작)
 - ‘아리랑’ 사의 경우, 모스크바 시장의 15%를 점유하며 연간 약 36톤의 스시를 생산하고 월 매출액이 약 3백만 루블 정도임(상점에서 스시세트 평균가격은 300루블)
- ❑ 모스크바 시민들은 소매점(레스토랑 제외)에서 연간 240-250톤(금액 환산 시, 약 250백만 루블)의 스시세트를 구매하고 있는 셈임

 -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두 도시에서만 연간 약 6천만 달러치의 스시를 먹고 있음
- ❑ 러시아에서 판매되는 스시는 진짜 일본식 스시와 차이를 보이며 러시아인들의 입맛에 맞게 변형된 형태라 할 수 있음. 또한, 신선도가 중요한 스시를 유통매장에서 보관, 판매하기 위해서 신선한 어류·해산물을 사용하는 대신에 스시 조제용도의 염수장·훈제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음

 - 스시 생산업체는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조제품이 아닌 반가공품 형태로 식재료를 공급받기도 하는데, 한 예로, 냉동새우를 구입하여 직접 새우를 삶아서 사용함
- ❑ 러시아에서 전통적으로 인기있는 수산물인 연어, 새우, 훈제뱀장어를 재료로 사용한 스시와 캘리포니아롤(날치알을 뿌린 누드김밥형태)이 판매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이외 러시아에서 사용되는 일식재료는 오징어, 참치, 불락, 문어, 가리비과, 연어알, 염장고등어 등에 불과함

<판매량이 높은 스시·롤 종류>



훈제연어(개당 75루블)



새우(개당 67루블)



훈제뱀장어(개당 79루블)



캘리포니아롤(349루블)

- 일식레스토랑체인점, 스시바, 피시레스토랑 등 러시아의 일식 관련 요식업체들은 일식재료의 대부분을 값비싼 일본산이 아닌 좀 더 저렴한 가격대를 제시하는 다른 국가들에서부터 수입하고 있음
- 러시아 대형레스토랑체인점들('TGI 프라이데이즈' , '일 파티오' , '플라네타 스시' 등)을 소유하고 있는 '로스인테르 레스토랑스 홀딩' 에서는 유럽산(노르웨이산 포함) 어류를 수입하고 있고 일본산은 소스, 페이스트, 김 정도에 불과함
- 높은 가격대의 톱클래스 레스토랑들은 일본산 어류를 수입하고 있지만, 대다수 러시아 레스토랑 업계는 유럽과 동남아산 어류를 사용하고 있음
- 중간 가격대의 '필리모노바 이 안켈' 피시하우스는 프랑스, 노르웨이, 러시아산 어류를 사용하며 킹크랩은 무르만스크에서 공급받고 있음

2. 인기 수산제품¹²⁾

냉장제품

게맛살

제품명	정면사진	뒷면사진	속포장사진/포장재질
VICI 게맛살 스틱			
상품 문구 keyword VICI 대양의 영혼, 건강한 삶의 스타일 게맛살 스틱 냉장			
제품 특징/인기요인	조리 및 이용 방법	원료성분/주성분	영양성분/단위(100g)
유전자변형물질, 보존료, 맛·향강화제를 첨가하지 않은 천연제품이며, 단백질의 원천이자 지방함량이 낮고 미네랄성분이 포함되어 이로우. 또한 흰살생선 피레트로 만들어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에도 좋음. 포장지 개봉하면 게맛살 날개별로 투명비닐포장. 게맛살이 촉촉하고 질감이 좋음	다양한 소스에 찍어서 그대로 먹거나 샐러드용으로 사용. 또는 샌드위치에 올려 먹거나 구워먹음. 이에 관해 포장지에 그림으로 설명해놓았음	생선묵(수리미) 같은 것, 물, 전분, 식용유, 소금, 설탕, 계란 흰자 식품첨가물: 천연 게와 동일한 향미 색소: 카르민(carmine)	단백질 5g 미만, 지방 1g 미만, 열량 73kcal 미만
제품시장 점유율(대략)		원산지	제조국
중량 및 포장	가격(현지화/한화환산)	제조사	판매자
300g	85.90루블/약 3,190원	비츄나이-루스	디스트리뷰터: 발트코 수입업체: 벨리바
인증마크 및 설명/ ISO 시리즈(QMS), HACCP, GMP, BRC 등			이력추적제 사용여부 traceability
1. GOST (러시아표준)  소비자보호를 위한 러시아규격과 일치함을 증명하는 인증			
제조방법	유통 및 보관 방법	유통기한	기타사항
	0° ~+5° C 보관	제조일에서 75일	-

12) 러시아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인기, 우수상품 순위 자료는 없는 관계로 소매유통매장들에서 주로 공통적으로 취급되는 제품 중심으로 선별함

냉동제품

명태 피레트

제품명	정면사진	뒷면사진	속포장사진/포장재질
프로스타 빵가루입힌 명태 피레트			
상품 문구 keyword 생선가시 없는 100% 명태 피레트			
제품 특징/인기요인	조리 및 이용 방법	원료성분/주성분	영양성분/단위(100g)
가시를 말끔하게 제거한 100% 명태 피레트에 빵가루를 입힌 것. 포장 1각에 블록형의 조각 4개가 들어있음. 속포장은 따로 없이 종이로 된 겉포장지만 있음. 맛과 품질이 뛰어나. 요리시간이 적게 듦	해동하지 않은 피레트 조각을 식용유를 넉넉하게 부은 프라이팬에서 굽거나 튀김	명태 피레트, 밀가루, 물, 소금, 조미료, 맛첨가물	열량 121kcal, 단백질 13.0g, 탄수화물 14.7g, 지방 0.9g
제품시장 점유율(대략)			
중량 및 포장	가격(현지화/한화환산)	제조사	판매자
400g	159루블/약 5,900원	프로스타 AG	수입: 아가마 임팩스 제조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업체: 아가마 이스트라
인증마크 및 설명/ ISO 시리즈(QMS), HACCP, GMP, BRC 등			이력추적제 사용여부 traceability
1. '프로스타 AG' 사의 동식물검역국 대리 수출등록업체 번호 DE HB-EFB 048 EG (냉동 어류·해산물 수출 허가받음)			
제조방법	유통 및 보관 방법	유통기한	기타사항
	냉장 혹은 냉동보관 반복적으로 해동하는 것은 피할 것	냉장실 1일, -6° C 4일, -12° C 3주, -18° C 보관시 유통기한은 포장 좌측에 따로 기입되어있음	






생선목 스틱

제품명	정면사진	뒷면사진	속포장사진/포장재질
VICI 피시 스틱			
상품 문구 keyword			
VICI 대양의 영혼 빵가루입힌 냉동 피시 스틱, 반가공품			
제품 특징/인기요인	조리 및 이용 방법	원료성분/주성분	영양성분/단위(100g)
짧은 시간 내에 손쉽게 요리 가능하고 맛이 뛰어나며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제품임. 유통매장 내에서 자주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일반 서민들이 자주 구매 가능한 가격대 제품임	해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프라이팬에서 굽기, 165° C에서 3분 튀김, 200° C 오븐에서 12분 요리, 전자레인지에서 8분 요리	생선 간 것, 물, 튀김가루, 식용유, 밀가루, 전분, 소금, 조미료, 식품첨가물(밀섬유), 맛·향강화제 (글루타메이트)	단백질 11g, 탄수화물 21g, 지방 5.7g, 열량 183kcal
제품시장 점유율(대략)		원산지	제조국
			러시아
중량 및 포장	가격(현지화/한화환산)	제조사	판매자
500g	68.90루블/2,557원	비츄나이-루스	디스트리뷰터: 발트코 수입: 벨리바
인증마크 및 설명/ ISO 시리즈(QMS), HACCP, GMP, BRC 등			이력추적제 사용여부 traceability
1. GOST (러시아표준)  소비자보호를 위한 러시아규격과 일치 증명하는 인증			
제조방법	유통 및 보관 방법	유통기한	기타사항
	-18° C 미만 냉동보관	12개월	

팡가시우스 피레트



제품명	정면사진	뒷면사진	속포장사진/포장재질
부흐타 이조빌리아 분홍 팡가시우스			
상품 문구 keyword			
분홍 팡가시우스 냉동 피레트			
제품 특징/인기요인	조리 및 이용 방법	원료성분/주성분	영양성분/단위(100g)
피레트 부문 어종들 중에서도 맛과 영양이 좋으면서 가격이 저렴함. 소득원이 낮은 일반서민들이 특히 선호 포장 안에 진공으로 속포장을 한 겹 더 입혀 청결유지, 피레트 형태가 부서지지 않게 고정	제조자는 외포장지 뒤에 권장하는 요리법 소개: 오븐요리, 구이에 적합 일반 생선요리와 동일하게 주로 밀가루반죽을 입혀 구워먹음 	분홍 팡가시우스 피레트	단백질 15g, 지방 3g, 탄수화물 0g, 열량 89kcal
제품시장 점유율(대략)		원산지	제조국
		베트남	베트남
중량 및 포장	가격(현지화/한화환산)	제조사	판매자
500(+/-15)g, 얼음막 제거한 중량 425(+/-15)g	119루블/4,416원	JSC FAQUIMEX	수입: 메가라인 제조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업체: 아가마 이스트라
인증마크 및 설명/ ISO 시리즈(QMS), HACCP, GMP, BRC 등			이력추적제 사용여부 traceability
1. GOST (러시아표준)  소비자보호를 위한 러시아규격과 일치 증명하는 인증			
제조방법	유통 및 보관 방법	유통기한	기타사항
	-18° C 냉동보관 반복적인 해동은 피할것	1년 6개월	

해산물 카테일

제품명	정면사진	뒷면사진	속포장사진/포장재질
부흐타 이조빌리아 해산물 카테일			
상품 문구 keyword			
살짝 데쳐 얼음막을 입힌 냉동 해산물 카테일			
제품 특징/인기요인	조리 및 이용 방법	원료성분/주성분	영양성분/단위(100g)
원료를 수입하여 러시아 현지에서 가공, 포장하였기 때문에 수입산 완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함. 해산물 얼음막 함량 관련 러시아 위생규정에 맞춰 제조되어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음	소금물에 3~4분간 데쳐 샐러드에 사용하거나 메인디시 요리에 첨가 	데친 홍합살, 오징어살 생것, 문어다리 생것, 데친 새우(껍질 벗긴 것), 물(얼음보호막), 소금	단백질 16g, 지방 2.6g, 탄수화물 3.3g, 열량 92kcal
제품시장 점유율(대략)		원산지	제조국
			러시아
중량 및 포장	가격(현지화/한화환산)	제조사	판매자
500g(얼음막 포함) 400g(얼음막 제외)	139루블/약 5,158원	아가마 로열 그린란드, 알바트로스 시푸드 프로덕션	주문자: 아가마 이스트라
인증마크 및 설명/ ISO 시리즈(QMS), HACCP, GMP, BRC 등			이력추적제 사용여부 traceability
1. GOST (러시아표준)  소비자보호를 위한 러시아규격과 일치 증명하는 인증			
제조방법	유통 및 보관 방법	유통기한	기타사항
	-18° C 냉동보관 반복적인 해동 피할 것	9개월	

건조품, 염건품, 훈제품

훈제연어






제품명	정면사진	측면사진	속포장사진/포장재질
루스코예 모레 훈제연어			
상품 문구 keyword			
훈제연어 피레트 조각			
제품 특징/인기요인	조리 및 이용 방법	원료성분/주성분	영양성분/단위(100g)
겉은 진공포장, 내부 바닥에는 종이판지로 연어조각을 받치고 있어 생선형태가 유지됨. 오메가-3 함유되어 건강에 이로움. 훈제연어는 러시아인들이 전통적으로 애호하는 제품임. 피레트 모양 및 가시제거 등 깨끗하게 가공 처리되어 먹기 편함	따로 요리할 필요 없이 5~10mm 두께로 슬라이스 형태로 잘라서 술안주용으로 그대로 먹거나 빵 위에 얹어서 먹음 	노르웨이산 냉장 대서양연어, 소금, 보존료 E211, E202	지방 15g, 단백질 23g, 열량 211kcal
제품시장 점유율(대략)		원산지	제조국
		노르웨이	러시아
중량 및 포장	가격(현지화/한화환산)	제조사	판매자
300g	254.9루블/약 9,485원	루스코예 모레	
인증마크 및 설명/ ISO 시리즈(QMS), HACCP, GMP, BRC 등			이력추적제 사용여부 traceability
1. GOST (러시아표준)  소비자보호를 위한 러시아규격과 일치를 증명하는 인증			
제조방법	유통 및 보관 방법	유통기한	기타사항
노르웨이산 대서양연어를 수입하여 러시아 현지에서 가공, 적합한 부위로 잘라 훈제	0° ~-5° C 냉장보관 혹은 1° ~5° C 보관. 개봉 후에는 24시간 이상 냉장고에 보관하지 말 것	0° ~-5° C 보관시 제조일로부터 3개월, 1° ~5° C 보관시 제조일로부터 2개월	2003년 올해의 제품 그랑프리에 선정, 프로드엑스포 전시회에서 우수제품으로 선정

건염 오징어포

제품명	정면사진	뒷면사진	속포장사진/포장재질
수호그루즈 건조 오징어			
상품 문구 keyword 스페셜 안주 잘게 조각낸 건염 오징어			
제품 특징/인기요인	조리 및 이용 방법	원료성분/주성분	영양성분/단위(100g)
러시아에서 안주용 건염제품(스낵류)은 다양하지 못하며 그중에서 맛과 품질이 좋은 것으로 평가됨. 오징어살이 질기지 않음. 내부가 보이는 투명포장. 이쑤시개를 포장지 안에 함께 동봉하는 센스	맥주 등 술안주용으로 그대로 먹음	오징어, 소금, 설탕	지방 0.3g, 단백질 45.0g, 탄수화물 2.0g, 열량 190.7kcal
제품시장 점유율(대략)		원산지	제조국
			러시아
중량 및 포장	가격(현지화/한화환산)	제조사	판매자
70g	71.90루블/약 2,672원	제조: 스낵마스터 포장: 라콤카	
인증마크 및 설명/ ISO 시리즈(QMS), HACCP, GMP, BRC 등			이력추적제 사용여부 traceability
1. GOST (러시아표준)  소비자보호를 위한 러시아규격과 일치 증명하는 인증			
제조방법	유통 및 보관 방법	유통기한	기타사항
	직사광선 피한 장소에서 -10° ~25° C 온도, 습도 75% 미만에서 보관	12개월 미만	전반적으로 러시아는 조미오징어 가공기술이 낮아 품질이 떨어지는 편임

캔제품, 밀폐용기에 담은 제품

참치캔

제품명	정면사진	측면사진	속포장사진/포장재질
카피탄 브쿠소프 올리브유 참치			
상품 문구 keyword 살균처리된 캔제품 보존료 No, 색소 No, 인공첨가물 No!			
제품 특징/인기요인	조리 및 이용 방법 냉장상태 그대로 바로 먹을 수 있으며 주로 샐러드용으로 사용 	원료성분/주성분 참치살, 올리브유, 소금	영양성분/단위(100g) 단백질 22g, 지방 15.9g, 열량 232kcal
제품시장 점유율(대략)		원산지	제조국
			러시아
중량 및 포장	가격(현지화/한화환산)	제조사	판매자
320g, 12개들이 포장	139루블/약 5,189원	달프롬 바	-
인증마크 및 설명/ ISO 시리즈(QMS), HACCP, GMP, BRC 등			이력추적제 사용여부 traceability
1. GOST (러시아표준)  소비자보호를 위한 러시아규격과 일치 증명하는 인증			
제조방법	유통 및 보관 방법	유통기한	기타사항
	0° ~+15° C 온도, 습도 75% 미만 상태 보관. 개봉후 냉장고에서 24시간이상 보관하지 말것	2년	‘카피탄 브쿠소프’ 는 러시아 전역에서 유명한 브랜드로 캔제품 부문 입상경력이 많고 러시아농업부 선정 상표

염장 청어 피레트

제품명	정면사진	뒷면사진	속포장사진/포장재질
산타 브레모르 마티아스			
상품 문구 keyword	델리카테센 청어 피레트 '마티아스', 신선한 채소		
제품 특징/인기요인	조리 및 이용 방법	원료성분/주성분	영양성분/단위(100g)
시장에서 인정받은 높은 품질의 제품, 밀폐용기에 담아 진공포장. 브랜드 '마티아스'는 염장청어 조제품 부문에서 최상의 제품으로 평가되고 있음	피레트일 경우 생양파, 파, 감자와 함께 그대로 먹거나 혹은 빵에 얹어서 먹음. 청어 온마리 염장일 경우 가시를 발라낸 청어살을 각종 채소들과 함께 샐러드용으로 사용 	청어 피레트, 식용유, 소금, 오이-딜(dill) 첨가, 천연향과 동일한 향 첨가, 식품첨가물(E410, E1442), 아세트산, 시트르산, 맛강화제(글루타메이트), 보존료(벤조산나트륨, 소르빈산칼륨)	단백질 19g, 지방 18g, 비타민 B2 0.18mg, 열량 996kilojoule
제품시장 점유율(대략)		원산지	제조국
			벨로루시
중량 및 포장	가격(현지화/한화환산)	제조사	판매자
순중량 250g 생선의 명목중량 200g	64.90루블/약 2,416원	산타 브레모르	
인증마크 및 설명/ ISO 시리즈(QMS), HACCP, GMP, BRC 등			이력추적제 사용여부 traceability
1. GOST (러시아표준)  소비자보호를 위한 러시아규격과 일치함을 증명하는 인증			
제조방법	유통 및 보관 방법	유통기한	기타사항
온마리 청어를 피레트로 가공하여 염장	-3° ~+6° C 온도로 보관	4개월	

열빙어 캐비아 스프레드

제품명	정면사진	측면사진	속포장사진/포장재질
루스코예 모레 열빙어 캐비아 상품 문구 keyword			
연어첨가한 델리카테센 열빙어 캐비아			
제품 특징/인기요인	조리 및 이용 방법	원료성분/주성분	영양성분/단위(100g)
저렴한 열빙어 캐비아에 러시아인들이 좋아하는 훈제연어를 첨가하여 마요네즈에 버무린 스프레드.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이 손쉽게 허기를 채울 수 있고 캐비아가 주재료이지만 가격이 저렴함	냉장상태 그대로 손쉽게 빵에 발라 먹거나 소형의 타르트레트에 얹어먹음 	열빙어 캐비아, 마요네즈, 훈제연어, 소금, 색소 E124와 E110, 보존료 E211와 E202, 유전자변형물질 함유되어있지 않음	단백질 5.5g, 지방 34.8g, 열량 306kcal
제품시장 점유율(대략)		원산지	제조국
			러시아
중량 및 포장	가격(현지화/한화환산)	제조자	판매자
165g	56.90루블/약 2,124원	루스코예 모레	
인증마크 및 설명/ ISO 시리즈(QMS), HACCP, GMP, BRC 등			이력추적제 사용여부 traceability
1. GOST (러시아표준) 소비자보호를 위한 러시아규격과 일치함을 증명하는 인증			
제조방법	유통 및 보관 방법	유통기한	기타사항
	0° ~-4° 냉장보관	제조일에서 4개월 미만(보관일과 동일)	

연어 캐비아

제품명	정면사진	측면사진	속포장사진/포장재질
펙코니 연어알			
상품 문구 keyword			
펙코니 연어알			
제품 특징/인기요인	조리 및 이용 방법	원료성분/주성분	영양성분/단위(100g)
<p>유전자변형물질 함유하지 않음, 친환경 캔 용기에 담은 1등급 연어알. 철갑상어알보다 가격이 월등히 저렴하여 일반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안 되며 가격대비 품질이 뛰어남. 적당량의 소금으로 염장 처리되어 맛있음</p>	<p>별다른 조리 없이 바로 먹을 수 있고, 주로 빵에 버터를 바른 후 위에 얹어먹음. 일식 유행으로 연어알 스시로 이용됨</p> 	<p>연어알, 소금, 식용유, 보존료 E200, E211</p>	<p>단백질 32g, 지방 15g, 비타민 B1 0.2mg, B2 0.1mg, PP 1.2mg, 열량 245kcal</p>
제품시장 점유율(대략)		원산지	제조국
			러시아
중량 및 포장	가격(현지화/한화환산)	제조사	판매자
140g	180루블/약 6,689원	펙코니	
인증마크 및 설명/ ISO 시리즈(QMS), HACCP, GMP, BRC 등			이력추적제 사용여부 traceability
<p>1. GOST (러시아표준)</p>  <p>소비자보호를 위한 러시아규격과 일치를 증명하는 인증</p>			
제조방법	유통 및 보관 방법	유통기한	기타사항
	-4° ~-6° C 냉장보관	12개월	각종 콩쿠르에서 우수상품으로 7번이나 선정된 바 있음

수산물 건강식품

미역 샐러드 조제품

제품명	정면사진	측면사진	속포장사진/포장재질
오케안 TRK 연어 첨가한 미역			
제품 문구 keyword 베샤멜소스(백색소스)에 연어 첨가한 미역 천연제품 건강식품 시리즈			
제품 특징/인기요인	조리 및 이용 방법	원료성분/주성분	영양성분/단위(100g)
보존료를 사용하지 않은 건강식품으로 천연요오드와 Mg, Se, Ca을 함유하고 있어 수험생들에게 이로움. 물질대사를 정상화시키고 면역력을 높여주며 염분, 독소, 방사성, 중금속을 배출시킴.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방사성오염을 우려한 시민들로 인해 수요 높음	바로 꺼내서 먹을 수 있는 조제품. 요리할 필요 없고 샐러드로 출출할 때 먹으면 됨	미역, 해바라기씨유, 염장 연어살, 양파, 오이피클, 설탕, 소금, 향신료 엑스트랙트, 천연향 등	단백질 1.3g, 지방 17.2g, 탄수화물 0.3g, 열량 157kcal
제품시장 점유율(대략)		원산지	제조국
			러시아
중량 및 포장	가격(현지화/한화환산)	제조사	판매자
165g	41.90루블/약 1,555원	오케안 트레이딩 컴퍼니-P	
인증마크 및 설명/ ISO 시리즈(QMS), HACCP, GMP, BRC 등			이력추적제 사용여부 traceability
1. GOST (러시아표준)  소비자보호를 위한 러시아규격과 일치 증명하는 인증	2. 천연제품  보존료 사용하지 않음		
제조방법	유통 및 보관 방법	유통기한	기타사항
	0° ~6° C 냉장보관	5개월	

3. 대형유통업체 수산물 구매담당자 인터뷰

가. '빅토리아' 그룹 본사

- 인터뷰 일시 : 2011년 6월 21일 11시
- 인터뷰소요시간 : 1시간
- 담당자 : 블라디미르 모로조프
- 지위 : 구매부 어류파트 부장
- 취급관련 수산물 : 모든 종류



- 업체설명: '빅토리아' 그룹에는 슈퍼마켓체인점 '빅토리아', 디스카운터 '도세보', '빅토리아 크바르탈', '세메이나야 코펠카', '캐쉬' 등이 포함됨. 러시아소매유통업체 Top50에서 15위 차지(2007년 기준 소매거래량 35% 성장). '빅토리아' 매장에 들어오는 전 제품은 100% 중간상(공급업체)을 통해 구입되고 있음
- 슈퍼마켓체인점 '빅토리아' 매장에 진열된 수산물 비중은 냉동(60%), 냉장(10%), 캔제품 제외한 염장·훈제 등의 조제품(30%)이며, 디스카운터 '빅토리아 크바르탈' 매장에는 냉동(60%), 조제품(40%)으로 이루어짐
- 현재 수산물 시장경기와 전망
 - 현재 러시아 수산물시장은 성장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제품 구입은 늘어나고 있음. 예를 들어, 냉동새우, 해산물카테일, 냉동오징어 등
 - 수요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수입산 수산물시장동향
 - 품목 종류는 늘어나지 않고 있으며, 기존의 수요가 있는 품목들인 대구(냉동, 카르카스 혹은 피레트), 명태(냉동, 카르카스 혹은 피레트), 대서양붉은볼락(냉동, 카르카스), 민대구(냉동, 카르카스 혹은 피레트), 유럽바다배스(냉장), 도미(냉장), 팡가시우스(냉동 피레트), 틸라피아(냉동 피레트) 등이 최근 2년간 안정적이며 평균적 규모를 유지하고 있음
 - 냉동새우의 경우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 남부해양의 홍다리얼룩새우(타이거 새우), 바나메이새우(여왕새우)의 수요가 늘고 있음

주요 수입국 및 취급수산물

- 덴마크 : 새우(한류성, 냉동)
- 중국 : 팡가시우스, 틸라피아, 바나메이새우(냉동)
- 노르웨이 : 대서양연어, 무지개송어(신선냉장, 냉동, 염장, 훈제, 원료용)
- 터키, 그리스, 아르메니아 : 무지개송어, 유럽바다배스, 도미, 터보트(냉장)

수입산의 소비시즌

- 수입산 대서양연어와 무지개송어는 여름철 조금 판매 증가하며, 그 외 시즌에 상관없이 연중 소비됨

자국산과 수입산의 소비비율 및 전망

- 현재 자국산 60%, 수입산 40%의 소비비율을 보임
- 유통매장 내에 자국산 규모 및 소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향후 수입산 수산물보다 자국산 비중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특히 북부어장의 무르만스크와 극동어장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공급물량이 더욱 많아지고 있음. 이는 자국생산업체를 지원하려는 러시아정부의 보호정책에 힘입은 것임

현재 시장의 수입산 점유율

- 러시아전체 판매 비율에서 보면, 자국산 80%, 수입산 20%이며, 모스크바 판매 비율의 경우 자국산 70%, 수입산 30%

선호하는 원산지 및 그 이유

- 중국, 방글라데시, 인도, 태국, 칠레 등을 선호하며, 해당 국가들에서 납품되는 제품들은 계속 품질이 균등하며 합당한 가격대를 제시하기 때문임. 또한 제품별 샘플을 제공하여 맛과 품질 등을 평가해볼 수 있도록 해줌

향후 수입 품종 및 규모 전망

- 경제위기 때에는 중국산 등 조금 더 싼 제품들로 구입하거나 자국산 명태, 대구로 대체해왔으나, 현재 경기호전으로 수입 품종 및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보임

☐ 거래시 주 고려사항

- 첫 번째는 가격, 품질(포장 등)이고, 두 번째는 프로모션(매장내 시식회, 광고 매우 중요)

☐ 한국산에 대한 인식

- 현재 한국산 김을 판매하고 있으나 김은 식품잡화에 분류되어 있어서 인터뷰이 담당파트가 아니며 그 외 한국산은 취급해본 적 없음

주요 인기품목

오징어

구 분	현지국산	수입산
품 종	태평양 오징어(냉동, 카르카스)	오징어(냉동, 피레트, 링 모양으로 자른 것)
품 질	매우 뛰어남	보통
가 격	비싸다	비싸다
시장점유	낮음	높음
유통시기	연중	연중
계절수요	10월~새해까지 가장 높음	10월~새해까지 가장 높음
소비특징	가정에서 샐러드용	수입산이 주로 판매, 레스토랑에서 안주용으로 소비
제품특징	품질과 맛이 월등히 좋음, 껍질 있음, 오징어살 두께가 더 두꺼움	껍질이 제거되어 있어서 요리하기 편리함
제품단가	120루블/kg	139루블/kg(중국산 피레트일 경우)
해당 매장의 제품 점유율	30%	70%



나. 슈퍼마켓체인점 ‘아즈부카 브쿠사’ 본사

- 인터뷰 일시 : 2011년 6월 21일 1시
- 인터뷰소요시간 : 1시간 20분
- 담당자 : 류드밀라 이노젠크체바
- 지위 : 구매부 어류파트 매니저
- 취급관련 수산물 : 주로 프리미엄급의 신선·냉장어류, 소량의 냉동어류



현재 수산물 시장경기와 전망

- 수산물은 정부규제를 많이 받는 품목이며 특히 수입산의 경우 동식물검역국(Posselhoznadzor)과 인간복지소비자권리보호감독원(Rospotrebnadzor)의 인증을 받은 외국 납품업체와 생산업체만 러시아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음. 동식물검역국의 대리 수산물 공급허가를 받은 업체 명단에 속해있는 업체들만 공급이 가능하며, 허가를 받기 위한 요구사항도 더욱 엄격해지고 있고 명단에 속하는 업체 수는 점차 감소되는 추세임. 이는 러시아생산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당국의 지원정책이라 할 수 있음
- ‘아즈부카 브쿠사’ 슈퍼마켓체인점은 프리미엄급 제품을 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부규제를 특히 잘 느끼고 있음. 왜냐하면 아직 러시아산은 수입산 프리미엄급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해내지 못하기 때문에(예를 들어, 캔제품과 신선 및 냉장어류 등), 러시아생산업체는 당사에 필요한 프리미엄급 제품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유럽, 지중해국가들, 스페인, 그리스, 터키 등에서 신선·냉장의 유럽바다배스(seabass), 도미(gilt-head bream) 등을 공급받고 있음
- 외국 납품업체들이 동식물검역국의 수출등록업체 명단에서 탈락될 경우 공급라인을 잃게 되어 간혹 어려움을 겪기도 함. 따라서 당국의 허가를 받는데 3개월~6개월의 시간과 비용을 소모할 준비가 되어있는 유럽생산업체들과 주로 파트너관계를 맺고 있으며, 필요한 품목을 공급할 수 있는 허가받은 외국업체가 없는 경우 대체품목을 찾기도 함

수입산 수산물시장동향

- 수입산 수산물 소비는 증가하고 있고 특히 냉장어류 소비가 증가세를 보임. 예전에는 유럽산과 지중해산 어종이 이국적인 것으로 취급되었지만, 현재 이미 러시아시장에 널리 보급, 소개되면서 폭넓은 소비자층에게 요리법 등이 익숙해져있고 대중화되고 있음

- 이와 동시에 운송방법에 따라 가격대도 달라지고 있으며, 즉, 신선·냉장어류의 경우 신선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차량수송보다 항공수송으로 제품을 공급받는 등 물류 고리도 다양해지고 있음. 일부 체인점들은 낮은 가격대를 위해 차량수송을 택하기도 함. 그리스, 사이프러스, 터키 등으로부터 다양한 품질의 제품이 공급되고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널리 보급되고 있음
- 구매 가능한 가격대가 생성됨. 가격과 품질의 상관관계에 따라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품목이 늘어나면서 소비규모가 증가함

주요 수입국 및 취급수산물

- 그리스(유럽바다배스, 도미), 프랑스(굴), 스페인(도미), 터키(유럽바다배스, 도미), 노르웨이 및 덴마크(대구, 민대구, 해덕, 북대서양대구속), 인도양(인도, 아랍에미리트) 등이 있으며, 모두 얼음에 담아 보관하는 냉장어류를 주로 취급
- 냉동어류는 소량 취급하며 주로 덴마크(대구, 노랑촉수 등)에서 공급받음
- 러시아시장으로 많이 공급되고 있는 중국산(팡가시우스, 틸라피아)은 고급슈퍼마켓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취급하지 않음

수입산의 소비시즌

- 양식어종이 아닐 경우 러시아산이든 수입산이든 개별 어종은 시즌이 정해져있고 맛과 품질이 높은 제철 수산물을 공급받음. 이에 비해 유럽바다배스, 도미, 노르웨이산 대서양연어 및 무지개송어는 양식으로 연중 공급됨. 프랑스산 굴의 경우, 보통 여름을 제외한 시기에 생산되는 제철 굴(시즌: 9월 중순~5월)을 공급받지만, 여름철에는 따로 5월~8월간 생산되는 종으로 대체하여 결국 연중 공급받는 셈임. 이와 같이 연중 공급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연중 소비가 가능하며 수산물별 시즌에 무관하게 구매함
- ‘아즈부카 브쿠사’ 슈퍼마켓에서는 자국산 어종을 소량 취급하며 주로 유럽산을 판매하고 있음. 자국산 무지개송어, 러시아철갑상어, 스텔렛철갑상어는 양식으로 연중 공급받아서 시즌영향을 받지 않음(냉장 및 활어 형태). 대구의 경우 자국산(무르만스크)과 대서양대구(덴마크, 노르웨이)를 취급하여 연중 판매함
- 슈퍼마켓 진열 시에 마지막 대러 공급국가명이 아닌 수산물 어획장소(지중해, 대서양, 인도양 등)를 기재하여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알림. 예를 들어, 굴의 경우 네덜란드(생산지가 아닌 중간공급국)를 통해 러시아로 반입되고 있지만 채취장소를 기입하고 있음

■ 자국산과 수입산의 소비비율 및 전망

- 자국산 30%, 수입산 70%의 비율을 보임. 자국산은 신선 및 활어 종류가 많지 않은 실정임. 극동어장에서 어획되는 어류는 바로 냉동시키거나 가공업체로 보내지며 신성냉장 형태로 러시아서부지역으로 운송되지 않고 있음. 북부어장의 무르만스크 지역에서 현재 냉장어류 보급을 활발히 진행시키고 있으며 당사에서도 무르만스크 자국산 냉장어류를 공급받고 있음. 자국산은 점차 발전하고 있지만 급격한 성장을 보이는 것은 아님
- 캔제품의 경우에도 동식물검역국에 승인받은 수출등록업체 명단에 속해있어야 함. 프랑스산(정어리), 덴마크산(홍합), 이탈리아산(참치, 안초비), 자국산(꽂치, 대구간유, 스프랫, 고등어, 아틀란틱호스마크렐) 등이 있음. 자국산 캔제품 종류는 그리 다양하지 않은 편이며 러시아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전통적으로 자주 먹는 캔제품만 취급함
- ‘아즈부카 브쿠사’ 는 모든 수산물을 디스트리뷰터를 통해 공급받고 있음. 하지만 전시회에 참석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품질이 높은 프리미엄급 제품을 직접 선택하기도 함. 예를 들어, 프랑스산 정어리 캔제품의 경우 수작업에 품질 좋은 오일을 사용하여 이상적인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음. 이탈리아산 냉장 참치캔도 수작업, 투명한 유리용기 포장, 품질 좋은 오일을 사용함. 자국산의 경우에도 좋은 원료를 사용하고 높은 기술력을 가진 자국생산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음
- 따라서 개별 품목마다 고품질의 제품을 선별하여 수입산과 자국산을 취급함. 개별 품목마다 이미 생산업체들이 정해져있긴 해도 정기적으로 다른 생산업체들의 공장방문, 시식 등 다른 제품들도 살펴보고 새로운 품목을 받아들여 소비자 반응을 살펴보기도 함. 회사 정책상 품목마다 최소 2개 생산업체(수입산과 러시아산)의 제품을 매장에 진열하여 생산업체간의 경쟁구도를 유지함

■ 현재 시장의 수입산 점유율

- 시장전체의 상황을 언급하기는 어렵고, ‘아즈부카 브쿠사’ 슈퍼마켓체인점에 한해서는 수입산이 월등히 우세함
- 자국산 대서양연어 및 무지개송어(염장, 훈제)를 취급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원료는 노르웨이산이고 러시아에서 염장, 훈제하여 포장하고 러시아브랜드 라벨링을 부친 제품이라 절반만 자국산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수입산의 점유율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 선호하는 원산지 및 그 이유

- 캔제품 : 발틱국가,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이며, 브랜드, 좋은 품질, 오랫동안 시장에 존재하는 가족운영생산체제(공장), 안정적인 생산, 믿을 수 있기 때문
- 신선어류 : 프랑스, 그리스, 노르웨이이며, 좋은 품질, 대형생산업체이기 때문
- 이국적 어류 : 인도, 아랍에미리트, 오스트레일리아(소량)

☐ 향후 수입 품종 및 규모 전망

- 현재 전망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왜냐하면 동식물검역국이 매년 수출등록업체 명단을 살펴보고 명단을 수정하고 있음. 당사에서 생산업체를 바꿀 의향이 없어도 동식물검역국의 등록업체 명단에서 제외되면 새로운 생산업체로 바꾸거나 대체품을 찾아야 하는 실정임. 게다가 수입산 납품업체 명단은 계속 축소되는 추세이며 동식물검역국과 정부규제의 향방은 추측하기 어렵고 상황은 불안정함

☐ 한국산에 대한 인식

- 4~5년 전에 한국산 스낵류(안주용 건조오징어, 건조안초비, 건조새우)를 취급한 적이 있고 매우 좋은 반응을 얻어 판매율도 높았으나, 디스트리뷰터 측에서 납품을 중단하게 되어 더 이상 취급하지 않게 됨. 한국생산업체와 디스트리뷰터 간의 문제인 것으로 추측됨. ‘아즈부카 브쿠사’에서는 이와 유사한 한국산 스낵류를 다시 취급할 의향이 높으나 현재 동식물검역국 수출등록업체 명단에 속해있는 스낵류 한국생산업체가 없는 상황임
- 그 당시 취급했던 한국산 스낵류 제품은 가격은 비싸지만 품질과 포장이 좋고(플라스틱 접시에 담겨있고 투명한 포장으로 내부 안이 다 보였음) 맛도 좋고 흥미로워서 판매도 잘 되었음. 이와 유사한 급의 러시아산제품이 없어서 중간층 이상의 소비자를 상대하는 ‘아즈부카 브쿠사’에 부합되는 제품이었음
- 현재 한국산 김밥김과 조미김을 판매하고 있으나 김은 식품잡화에 분류되어 있어서 담당파트가 아니어서 언급 불가능함
- 라틴문자를 사용하는 여타 국가들의 제품과는 달리, 한국산 제품의 경우 포장에 한글표기로 되어 있어서 무엇이 브랜드명인지 설명인지 구분이 안가고 이해 불가능한 제약이 있어서 기억에 남지 않음

■ 거래시 주 고려사항

- 1)품질(신선해야 함, 눈에 띄는 포장, 원료성분, 포장 재질), 2)가격(유사품 중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함), 3)물류(상점진열대가 비는 일이 없도록 공급이 안정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져야 함), 4)프로모션(시식회나 할인행사 필요함) 등 순서로 거래시 주요 고려사항임
- ‘아즈부카 브쿠사’ 사이트(www.azbukavkusa.ru)에 있는 품목별 구매부 담당자들에게 직접 제품 제안서 메일을 보내면 이를 살펴보고 가능성을 알려주며 특히 생산업체가 대량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 당사와 직접 거래를 할 수도 있고 적은 물량일 경우 디스트리뷰터를 통해 공급받음
- 특히 온도영향을 받지 않는 건조품이나 캔제품의 경우 당사와 직접 거래할 수 있음. kg별로 파는 도매형태가 아닌 이미 포장되어 있는 완제품인 소매상품에 흥미를 갖고 있음
- 향·색소첨가물, 맛강화제, 보존료 등이 첨가되지 않은 고품질의 제품, 건강식품, 내추럴식품이 우선적으로 요구됨. 예를 들어, 맥주안주용 건조품, 반가공품, 캔제품 등에 맛강화제가 첨가되지 않은 것 혹은 최소한도로 들은 것이 건강식품으로 여겨짐. 한 예로, 거래처 중에서 그리스 양식업체의 경우 먹이사료를 엄격하게 선별 사용하고 있음

주요 인기품목

게맛살(냉장)

구 분	현지국산	프랑스산
품종	게맛살(브랜드-메리디안)	게맛살(브랜드-코라야)
품 질	매우 뛰어남	매우 뛰어남
가 격	적당함	비싸다
시장점유	매우 높음	높지 않음
유통시기	연중	연중
계절수요	연중 안정적, 새해 무렵 판매 급증(가정에서 게맛살 이용한 샐러드를 많이 만들기 때문)	
소비특징	샐러드용, 마요네즈에 찍어서 바로 먹음	
제품특징	러시아산 중에서 가장 품질이 높음. 다양한 국가들의 원료를 사용하며 원료 품질이 높음. 냉장 게맛살	높은 품질의 원료, 냉장 게맛살
제품단가	86루블/200g	188루블/180g
해당 매장의 제품 점유율	70%	30%
사 진		

넙치 피레트(냉장)

구 분	현지국산	덴마크, 노르웨이산
품 종	대서양 넙치(무르만스크 북해)	대서양 넙치
품 질	뛰어남	매우 뛰어남
가 격	비싸다	매우 비싸다
시장점유	높음	높음
유통시기	연중	연중
계절수요	안정적, 여름 휴가철에는 조금 감소	
소비특징	구이, 증기로 찌기, 오븐요리	
제품특징	조금 저가, 피레트 자른 모양이 좋지 않음	시각적으로 외관이 좋음, 항공운송과 통관비로 인해 가격이 더 비쌈
제품단가	216루블/100g	-
해당 매장의 제품 점유율	50%	50%
	러시아산과 유럽산넙치 두가지 모두 합쳐서 전체 냉장수산물 중에서 5%의 판매율	

오징어(냉장)

구 분	지중해산
품 종	유럽 통해 들어오는 지중해 오징어(크기 500g)
품 질	매우 뛰어남
가 격	매우 비싸다
시장점유	높지 않음
유통시기	연중
계절수요	겨울, 봄 (사순절 시작할 때 판매 증가, 부활주일 전 40일간 금식동안 육류 대신 어류 섭취)
소비특징	가정요리용(오징어순대와 같이 속을 채워 오븐요리), 냉동오징어와 동일하게 요리
제품특징	중량 달아서 판매 가격과 물류가 뛰어남(현재 경쟁할 수 있는 자국산 냉장오징어는 없음)
제품단가	139루블/100g
해당 매장의 제품 점유율	전체 신선·냉장 수산물 중에서 2%의 판매율 냉동오징어보다 냉장오징어 판매비율이 높고 혹은 냉동해산물카테일(오징어포함) 형태가 수요 있음. 캔제품(자체 수액 혹은 오일에 담은 것)도 판매됨

다. 대형수입업체 ‘루스카야 브나야 콤파니아’

- 인터뷰 일시 : 2011년 6월 22일 5시
- 인터뷰소요시간 : 50분
- 담당자 : 막심 소콜로프
- 지위 : 구매부장
- 취급관련 수산물 : 모든 종류



업체설명 : ‘루스카야 브나야 콤파니아’ 는 러시아 수산부문 대형생산업체인 ‘루스코예 모레’ 그룹 계열사로 당사의 디스트리뷰터이자 대형수입업체임. 러시아 전역의 무역상과 가공업체, 대형소매유통체인점들(아산, 메트로 캐쉬&캐리, 오케이, 렌타, 시지모이 콘티넨트, 빅토리아, 스파르, 마그니트 등)에 수산물을 납품하고 있음

현재 수산물 시장경기와 전망

- 러시아 수산물시장은 지난 10-15년간 성장하고 있고 연간 10%의 성장률을 보여 왔음. 하지만 경제위기 이후 아직 시장경기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여서 예전과 같은 성장률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 현 단계의 수산물시장은 경제위기 이후의 단기적인 하락 상태에 머물러있음. 전반적인 경제 희생과 소비자들의 소비능력 회복이 우선되어야 함
- ‘루스카야 브나야 콤파니아’ 는 모든 종류의 다양한 수산물을 취급하고 있고 러시아 수산물시장은 거대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품종과 범주(붉은살 생선, 부어, 흰살 생선, 피레트, 양식어, 새우 등)마다 상황은 상이한 관계로 일반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움
- 판매가 잘 되는 어종은 붉은살 생선(대서양연어, 무지개송어), 부어(청어, 고등어), 새우, 팡가시우스피레트, 러시아산(명태, 곱사송어, 오징어) 등임. 물량 기준 시에 청어, 고등어, 명태, 곱사송어 등이 판매량이 높고, 금액 기준 시에 붉은살 생선(노르웨이산)의 판매가 높음

수입산 수산물시장동향

- 수입산의 규모는 시장경기와 더불어 감소함. 예를 들어, 붉은살 생선의 경우 항상 규모가 증가해왔으나(연간 20% 성장률) 경제위기 이후 2년간 성장을 하고 있으나 이전의 규모만치 성장률을 보이지 않음. 고등어와 청어는 규모가 감소함. 중국산 명태 피레트와 베트남산 팡가시우스 피레트는 최근 1-2년간 감소세를 보임
- 이에 비해 품목은 늘어나고 있음. 특히 러시아서부지역들에서 예전에 수요가 높지 않던 품목들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음. 예를 들어, 다양한 종류의 새우, 뱀장어(european eel) 등 이국적인 품종들에 대한 소비 증가세

주요 수입국 및 취급수산물

- 노르웨이(대서양연어, 무지개송어, 청어, 청어피레트, 열빙어), 영국(청어, 고등어), 아이슬란드(청어, 열빙어), 중국(명태피레트, 틸라피아피레트, 민대구피레트), 미국(곱사송어, 케타연어, 민대구), 베트남(꽝가시우스피레트, 해산물각테일, 문어), 칠레(무지개송어, 홍합살) 등

수입산의 소비시즌

- 각각의 어종마다 조업시즌이 있고 이 시기에 맞춰서 제품들이 공급되고 있음. 따라서 특별히 수입산과 러시아산에 따라 제철소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님. 전반적으로 가을, 겨울, 봄(4월까지)은 수산물 소비가 높고 여름철에는 소비가 감소됨
- 예를 들어, 러시아산 고등어 시즌은 여름철이고 이 무렵 아이슬란드산 고등어(머리제거)도 함께 시장에서 유통됨. 아이슬란드산 고등어시즌이 끝난 후에는 다른 원산지(영국, 노르웨이,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의 고등어가 순차적으로 계속 시장에 들어오기 때문에(고등어 시즌 6월~3월까지), 당사는 제철고등어를 제공하는 원산지국과 계약을 맺고 있음

자국산과 수입산의 소비비율과 점유율

- 러시아 전체 수산물시장규모(수입산과 러시아산 포함)는 일반적으로 연간 약 2.5백만 톤으로 평가되며 수입산 시장은 약 800천 톤 정도로 평가됨. 러시아시장은 통계수치를 내리기가 어려운데, 특히 러시아산의 경우 밀렵 및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기 때문임
- ‘루스카야 브나야 콤파니야’ 사 내에서는 수입산 65%, 자국산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비율은 변화될 것임

선호하는 원산지 및 그 이유

- 노르웨이, 영국, 아이슬란드, 중국, 미국, 베트남, 칠레 등
- 노르웨이와 칠레는 연어류를 가장 큰 규모로 생산하는 대표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연어류를 수입하고 있고, 이와 같이 각각의 품목마다 세계에서 가장 주도적인 선도업체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음. 회사의 명성 및 큰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품질을 중요시하기 때문임

향후 수입 품종 및 규모 전망

-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수입 품종의 경우, 시장에서 소비 및 수요가 증가될 시에 품종도 증가될 수 있음. 기존 취급품목이 시장에서 수요가 높지 않을 경우 다른 품목으로 교체할 것임. 시장상황과 소비자 수요에 따라 변동될 것임

거래시 주 고려사항 : 품질이 가장 중요함

주요 인기품목

고등어

구 분	아이슬란드산	노르웨이산	영국산	아일랜드산	네덜란드산
품 종	대서양고등어	대서양고등어	대서양고등어	대서양고등어	대서양고등어
품 질	보통	매우 뛰어남	매우 뛰어남	-	-
가 격	적당함	매우 비싸다	비싸다	-	-
시장점유	높지 않음	높음	높음	낮음	낮음
유통시기	여름	가을	10월	11월	새해이후
계절수요	여름	가을	10월	11월	새해이후
소비특징	염장	훈제, 염장	훈제, 염장	훈제, 염장	훈제, 염장
제품특징	페레즈제도 어획. 여름철 고등어는 지방함량, 품질 등에서 가을철 고등어와 큰 차이를 보이며, 지방함량이 매우 높아 주로 염장을 함	사이즈 400-600, 지방함량, 품질, 특징 등 영국산과 동일하나 가격이 더 비쌌. 주로 일본 수출용이어서 가격이 더 비싼 것임. 연안가공	사이즈 300-500, 노르웨이산과 품질 동일. 연안가공	사이즈 600+	사이즈 200-300, 300+
제품단가	-	283루블/kg	275루블/kg	-	-
판매비중	-	영국산보다 낮음	노르웨이산보다 공급물량이 많아서 더 많이 판매	-	-

청어(냉동)

구 분	현지국산	노르웨이산
품 종	태평양청어(극동)	대서양청어
품 질	보통	뛰어남
가 격	적당함	비싸다
시장점유	높음	높음
유통시기	창고 보관시 연중	연중
계절수요	늦여름에 시즌시작해서 가을까지 유지, 여름철 수요 감소	9월~2월 수요 높음, 여름철 수요 감소
소비특징	염장, 훈제	염장, 훈제
제품특징	노르웨이산과 조업시기 동일. 사이즈 400+	냉각, 포장 등의 품질이 러시아산보다 뛰어남. 사이즈별로 포장(사이즈 200-, 200-300)
제품단가	응답기피	-
판매비중	노르웨이산보다 낮음	러시아산보다 높음

라. 수입업체 ‘아르신텍(ARSINTEK)’

- 인터뷰 일시 : 2011년 6월 23일 2시
- 인터뷰소요시간 : 2시간
- 담당자 : 키릴 유하노프 (CEO), 파벨 루사코프 (수입부서 매니저)
- 취급관련 수산물 : 냉동어류, 해산물, 냉동반가공품 등



업체설명 : 1996년부터 러시아시장에서 활동 시작(수입 및 디스트리뷰터), 자체브랜드 소유, 대형유통체인점들(빅토리아, 덕시, 기페르글로부스, 아보시카, 스파르 등)에 납품

현재 수산물 시장경기와 전망

- 러시아수산물시장은 규모가 크며 발전되는 과정에 있고, 자국산 뿐만 수입산 시장도 함께 발전하고 있음. 향후 5-10년간 러시아의 어획량은 증가할 것이고 수입은 중단되지 않을 것임. 또한 소비자들의 어류소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수산물 판매규모는 경제위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왔으며 경제위기 이후 국내시장 변화로는 판매가 더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품목들이 생겨남. 예를 들어, 저렴한 자국산 어류의 판매가 증가했고 러시아정부의 얼음막 위생규정으로 인해 저렴한 중국산 명태피레트와 베트남산 팡가시우스 반입이 줄어들음
- 중국산 명태피레트는 러시아산 명태 원료로 중국에서 가공하여 러시아로 재수출하는 품목으로 러시아정부는 국내에서 명태가공을 늘려 중국산을 자국산으로 대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으며, 소비자들도 이를 지지하고 있음
- 최근 2년 사이 베트남산 팡가시우스 판매가 급격히 줄어들어 사장되는 분위기이며(10% 하락), 그 전만 해도 피레트 부문에서 넘버원으로 엄청난 규모로 판매되었고 중국산 명태피레트보다 판매량이 높았음(5년 전 러시아시장에 등장함, 가격이 저렴하고 맛이 좋고 외관상 보기 좋아 높은 평가를 받음). 베트남산 대신에 러시아산 피레트가 빈자리를 채우기 시작했고 이제 저렴하면서 새로운 어종의 피레트는 더 이상 러시아로 들어오지 않고 있음. 현재는 위생규정에 최대한 맞춘 베트남산 팡가시우스가 소량 수입되고 있음

수입산 수산물시장동향

- 수입산 수산물규모가 증가한다면 소량에 불과할 뿐임. 주로 수입되는 중국산의 경우, 5% 얼음막 위생규정 시행으로 인해 새우, 명태피레트, 틸라피아피레트 판매가 감소됨

- 수입산 수산물(냉동)은 기존 품목 이외에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고 향후에도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러시아시장에서는 가격이 주요 결정요인이며, kg당 5\$ 가격대라도 새로운 품목으로 시장에 들어오기 힘든 실정임. kg당 2\$~3\$ 가격대인 경우에 한해 러시아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음. 5년 전에 팡가시우스, 텔라피아가 새로운 품목으로 시장에 등장한 이후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규품목은 더 이상 없는 상태임. 이외 유럽바다배스, 도미가 현재 유통 판매되고 있으나 큰 규모는 아닌 상태임.

■ 주요 수입국 및 취급수산물

- 중국(텔라피아피레트, 명태피레트, 민대구), 한류성 새우(캐나다, 덴마크, 아이슬란드), 홍다리 얼룩새우(방글라데시), 민대구(캐나다, 미국,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대서양연어(노르웨이, 칠레), 홍합(칠레)
- ‘아르신택’ 사는 원료를 구입하여 당사에서 직접 포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자체 브랜드(‘아르신택’ , ‘아르스피시’)가 있음. 간혹 중국에서는 ‘아르신택’ 사의 브랜드명으로 포장을 해서 납품하기도 함. 물량이 크면 공급국에서 중량 포장하고 물량이 적으면 러시아 내에서 중량포장을 함. 개별냉각, 블록형 냉각 형태로 운송됨

■ 수입산의 소비시즌

- 어종 중에서 자국산을 수입산으로 대체해야 하는 시기가 있음. 예를 들어, 대서양붉은볼락의 경우, 1년에 10개월(3월~12월)은 러시아산, 2개월(1월과 2월)은 아이슬란드산으로 대체함. 아이슬란드산은 연중 공급되고 있으나 자국산의 가격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1~2월을 제외한 시기에는 소비가 줄어듦. 자국산과 아이슬란드산 간의 차이는 거의 없기 때문에 가격이 주요 구매선택요소로 작용함
- 오징어의 경우, 자국산 극동오징어(연 2~3회 어획)가 주로 사용되나 1년에 1~2달 정도 가격이 인상되는 시기(새해 전의 12월, 1월, 2월)에는 중국산 오징어(껍질제거)로 대체함
- 이외 다른 어종은 자국산과 수입산이 평행적으로 공급되고 있음

■ 자국산과 수입산의 소비비율 및 전망

-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이르쿠츠크, 니즈니노브고로드 등 대도시의 경우 자국산 50%, 수입산 50%의 소비비율을 보이나, 다른 소도시들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수입산 소비가 미비하여 자국산 95%, 수입산 5%에 불과함

- 예외적으로 수입산을 자국산으로 대체 불가능한 맥주안주용 새우는 이미 소비자들의 입맛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여서 다른 도시들에서도 소비되고 있음
- 대도시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은 소도시들에서는 항상 상점에서 판매되는 저가의 자국산 명태(50루블), 빨간대구, 블루화이팅 등의 구입을 선호하며 상대적으로 가격이 더 비싼 피레트보다 온마리 카르카스 형태로 구입함. 주로 100루블 미만 가격대를 선택함

■ 현재 시장의 수입산 점유율

- 새우, 가리비, 홍합 등 해산물(오징어 제외)의 경우, 자국산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이며 시장의 약 95% 이상이 수입산인 실정임. 이 상황은 향후에도 변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한류성 새우의 경우, 예전에는 덴마크산 새우가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현재 약세를 보임. 덴마크는 아이슬란드 새우와 캐나다 새우를 원료로 구입하여 덴마크에서 가공처리한 후 러시아로 공급하는 식임. 현재 이 새우 원료는 러시아로 바로 들어와서 현지에서 가공되고 있음
- 난류성 새우(바나메이새우, 홍다리얼룩새우 등)의 경우, 중국, 방글라데시, 태국 등에서 러시아로 들어옴. 중량포장된 형태(브랜드 부착 혹은 부착하지 않은 투명포장지상태) 혹은 무게를 달아 판매하는 형태로 러시아로 운송되고 수입업체 혹은 디스트리뷰터를 통해 슈퍼마켓 등 유통매장들로 공급됨
- 중국산과 다른 수입산을 비교할 시에 다른 수입산의 품질이 중국산보다 뛰어나지만 가격이 더 비싸기 때문에 중국산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 예를 들어, ‘아르신텍’ 사는 10년 전에 한국산 게맛살을 러시아로 들여왔지만 한국산 가격이 너무 비싼 관계로 중국산을 취급하게 됨. 다른 러시아 업체들에서도 게맛살 원료인 생선묵(수리미)을 다양한 국가들에서 들여오고 있으나, 한국산은 가격경쟁력에서 뒤지기 때문에 더 이상 러시아시장 진입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현재 러시아 게맛살 생산업체에서 생산되는 게맛살의 품질이 향상된 관계로 한국산과 비교시 품질에서 조금 뒤떨어져도 시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이며 특히 한국산보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임. 러시아 게맛살시장은 10년 전만해도 고품질의 한국산이 눈길을 끌었으나 그 후 가격경쟁력으로 인해 중국산이 우위를 차지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품질 및 가격경쟁력이 뛰어난 러시아산이 중국산을 누르고 있음
- ‘아르신텍’사에서 수입하기를 희망하는 한국산 품목은 메켈빙어(mackerel icefish)이며, 한국에서 러시아로 직수입되는 공식적인 루트는 현재 없음. 기존에는 한국에서 발틱국가(라트비아, 리투아니아)로 한국산 메켈빙어를 보낸 후 그곳에서 다시 중량포장하여 라트비아산으로

바뀐 후 러시아로 재수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직수입이 아니어서 가격이 인상되기도 함. 현재 러시아로 수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동식물검역국에 승인받은 러시아수출등록업체 명단에 올라와 있어야 하며, 현재 등록된 한국업체는 총 4개(COSIS, 대상, 우일, 유성물산)에 불과하고 해당 품목은 모두 김, 미역, 이를 원료로 만든 제품에 한함. 이로 인해 발틱국가를 통해 재수출하는 형태도 현재는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원료의 원산지(선박)와 가공공장도 동식물검역국에 등록되어야 하기 때문임. 따라서 러시아로 수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동식물검역국의 승인을 먼저 받는 것이 급선무임. 한편, 아직도 불법적인 비공식 루트를 통해 한국산 메켈빙어가 발틱국가산, 싱가포르산으로 둔갑되어 러시아로 들어오고 있다고 함. 러시아에서 메켈빙어는 손질하지 않은 온마리 전체(냉동)를 그대로 판매하며, 소비자들이 직접 머리를 자르고 내장 제거하여 구워먹음. 가격(570루블/kg)은 비싸지만 텔리카테센 어종으로 인식되며 구소련시절부터 러시아소비자들에게 익숙한 애호되는 어종으로 수요가 매우 높음. 대서양연어보다 비싼 가격으로 실제 러시아시장에서 판매되는 어종 중 가장 비싼 가격대라 할 수 있음. 만약 한국산 메켈빙어가 직수입될 수 있다면, 모스크바에서 전부 다 판매 소진될 수도 있음. 현재 칠레산 메켈빙어가 러시아에 수입되고 있고, 러시아도 한국도 영국으로부터 쿼터를 받아서 어획하고 있음

- 러시아에서 인기있는 어종인 기름치(oilfish)의 경우, 한국업체가 한국선박에서 어획한 기름치를 싱가포르, 타이완에 판 후 그곳에서 가공되어 러시아로 공급되고 있음. 가공업체는 한국산 기름치를 원료로 피레트를 만들어 싱가포르산 기름치 피레트로 러시아로 들어옴. 한국 선박이나 생산지가 동식물검역국에 등록되지 않는 한 3국을 통해 수입되게 됨. 러시아에서 기름치의 99%는 훈제용(냉훈)으로 이용되고 연중 수요가 안정적으로 있음
- 훈제 유럽뱀장어의 경우, 중국, 타이완에서 수입되며 특히 일식레스토랑의 유행으로 러시아 틈새시장에서 수요 높은 품목임
- 고등어의 경우, 러시아에서 높은 판매량을 보이는 품목으로 스코틀랜드산 고등어(원료용)가 주로 수입되고(약 95%) 러시아 내에서 훈제하여 판매됨. 러시아에서 고등어는 구이용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음
- 비싸지 않은 가격대의 가자미 피레트는 러시아에서 항상 수요가 높음. 가격이 비싼 넙치보다 가자미 수요가 더 많은 편임. 이외 러시아 소비자들은 흰살생선을 애호하며, 임의의 흰살생선피레트의 가격대가 2~3\$/kg이라면 수요는 항상 있음
- 러시아에서 굴과 가리비는 그리 많지 않은 규모로 소비되고 있음

▣ 러시아시장에서 수요 높은 품목

- 피레트 : 명태, 틸라피아, 민대구, 팡가시우스, 대서양붉은볼락
- 카르카스 : 명태, 오징어(러시아산), 해덕(러시아산), 빨간대구, 민대구(캐나다), 노토테니아(스페인산, 아르헨티나산) 등이 있음. 이중에서 저가의 대중적 어종인 명태, 오징어, 해덕, 빨간대구 순으로 판매량이 높음. 특히 오징어의 경우, 자국산 극동오징어(냉동)는 높은 품질을 자랑하고 껍질있는 상태로 판매됨. 이에 비해 경쟁국인 중국산 오징어(냉동)는 껍질이 제거된 채 판매되어 시간이 없는 주부들이 주로 사용함. 오징어는 주로 샐러드용으로 사용(약 95%)되며, 캔제품보다 냉동형태가 수요가 높음
- 냉동 수산물(카르카스, 피레트)의 경우, 러시아소비자들은 브랜드를 보고 제품을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과 얼음막 함량을 살펴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브랜드는 중요하지 않음. 왜냐하면 러시아수입업체들이 원료를 수입하여 러시아에서 자체브랜드로 중량포장하여 유통매장에 납품하며 러시아 매장에 진열된 제품들에는 주로 투명 포장지에 러시아브랜드가 작게 기재되어 있고 원료의 원산지 표기는 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소비자들은 투명포장 내부에 담긴 어류를 직접 눈으로 비교해서 살펴보고 주로 가격이 낮은 쪽을 선택함
- 반가공품 : 러시아산(시장점유율 90%)은 품질이 낮고 가격이 매우 싸며, 수입산(유럽산, 점유율 10%)은 품질이 높고 가격이 비쌌. 러시아수산물시장에서 반가공품은 전체 시장의 1~2%에 불과하며 대도시 혹은 슈퍼마켓체인점들에서 판매되고 있음
- 냉장 : 전체 시장에서 냉장수산물의 비중은 매우 낮으며, 대표적인 냉장어류는 대서양연어 정도를 들 수 있음. 고급생선레스토랑에서 냉장어류(유럽바다배스, 도미 등), 냉장새우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소량에 불과함. 신선도 유지를 위해 항공수송이 요구됨
- 조제품 : 안주용 건조오징어(스넥류)는 러시아에서 수요가 매우 높은 인기상품이고 전망 높은 비즈니스 품목임. 한국산과 중국산 등이 예전에 수입되었고 현재 원료를 수입하여 러시아 내에서 중량포장하고 있음(원료는 100% 수입산, 동식물검역국 등록 요구됨). 다양한 어종의 훈제, 염장제품이 판매되며, 주로 원료를 수입하여 러시아에서 훈제, 염장하고 있음. 예를 들어, 냉동청어를 수입하여 러시아에서 염장함

▣ 선호하는 원산지 및 그 이유

- 냉동새우, 민대구(캐나다): 그린란드 연안에서 새우를 어획하는 여러 국가들 중에서 캐나다의 어획량이 많고 동일한 품질 조건에 가격이 낮음. 민대구의 경우, 아르헨티나산(더 맛있고 가격이 더 비쌌)과 캐나다산(조금 저렴함)이 있음

- 홍다리얼룩새우(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는 러시아세관에서 100% 특혜를 받는 국가로 지정되어 있어 관세율이 없기 때문에 유리함. 예를 들어, 인도산 홍다리얼룩새우 가격이 더 싸지만 러시아로 반입될 때 관세율이 붙어서 결국 방글라데시산보다 더 비싸게 됨. 만약 방글라데시가 특혜를 받지 않게 되면 더 이상 방글라데시산을 취급하지 않게 될 것임

- 피레트(중국), 오징어(아르헨티나, 스페인), 참오징어와 문어(인도)

향후 수입 품종 및 규모 전망

- 향후 새로운 수입 품종이 생겨난다면 한두 가지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며 아마도 비싼 어종 중에서 생길 것으로 예상됨. 최근 10년간 러시아시장에서 새로 등장한 수입 품종은 팡가시우스와 틸라피아이며 그 외 신규 품종은 없는 상태임

거래시 주 고려사항

- 1)가격, 2)품질, 3)유통(물류), 4)프로모션 순으로 고려되며, 브랜드는 중요하지 않음. 예를 들어, 청어만 해도 지금까지 시장에 수백 가지의 브랜드가 존재했지만 청어 자체의 가격, 품질, 맛이 어떠한가를 평가하지 브랜드를 보고 선택하지 않음. 브랜드보다 오히려 원산지가 중요하게 평가될 것임

- 러시아시장에서 수산물의 선별은 가격대비 품질상태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 있음

한국산에 대한 인식

- 10년 전만 해도 한국산 게맛살이 유명했지만 이미 과거에 불과하고 더 이상의 한국산 수산물은 러시아시장에서 취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한국산에 대해 언급할 것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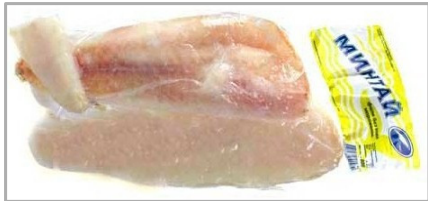
- 수산물 이외의 한국산 전반 제품의 경우, 한국산은 품질이 좋고 믿을 수 있으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됨. 이제 한국산은 일본산의 품질 수준으로 올라선 것으로 인식됨. 유럽산은 고품질로 가격이 아주 비싸지만, 한국산은 품질도 좋으면서 가격도 비싸지 않음

- 만약 한국산 수산물이 러시아시장에 진입하게 된다면 가장 큰 경쟁상대국은 중국이 될 것임. 사실 중국은 전세계 국가들과 경쟁하고 있음. 또한 어떤 종류의 한국산 품목이 러시아시장에 들어오는가에 따라 경쟁상대국은 변하게 될 것임. 예를 들어, 한국산 기름치의 경쟁상대국은 싱가포르와 타이완이 될 것이며, 민대구의 경우 캐나다, 남미와 경쟁, 흰살생선 피레트의 경우 중국과 경쟁하게 될 것임

- 러시아시장에서 가능성 있는 수입품목은 새우 등의 해산물. 기름치, 훈제뱀장어, 굴, 참치캔 등을 들 수 있음
- ‘아르신텍’ 사 판매순위
 - 판매량 순위별: 명태피레트, 민대구피레트, 한류성새우, 홍다리얼룩새우, 바나메이새우 등
 - 매출액별: 해산물들(새우 등). 왜냐하면 새우가격은 명태보다 kg당 10배 더 비싸기 때문

주요 인기품목

명태(피레트)

구 분	현지국산	중국산
품 종	명태 피레트 냉동	명태 피레트 냉동
품 질	별로*	모든 중국산은 좋은 품질은 아니지만 중간수준은 됨. 보통
가 격	품질대비 비싸다	적당함
시장점유	- 경제위기 전에는 10% - 경제위기 이후 30%	- 경제위기 전에는 90% - 경제위기 이후 70%
유통시기	연중 - 9월~5월 판매량 높음(전반적으로 모든 냉동어류와 관계됨) - 6월~8월간에는 판매 급감	
계절수요	수요가 가장 높은 시기는 새해 전 무렵 9월~12월까지 수요 상승곡선, 1월~5월 차츰 하강곡선, 6월~8월 급격히 하강	
소비특징	밀가루 입혀 전을 부치거나 굽거나 튀김	
제품특징	무르만스크공장 이외의 경우 전반적으로 가공기술이 낮아서 품질이 떨어짐	가공 시에 폴리인산을 첨가하여 명태가 물을 흡수하도록 함(35% 물을 더 함유), 화학제 사용. 가시제거 잘함
제품단가	86루블/kg	88루블/kg
해당 매장의 제품 점유율	20%	80%
사 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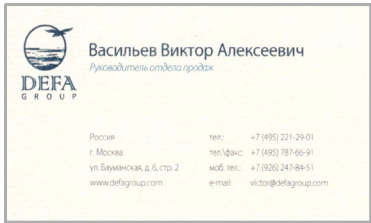
* 피레트는 무르만스크지역 공장(수출용가공공장)에서 가공된 경우에는 이상적인 품질 상태로 유럽수준과 동일함. 이 지역에서는 바로 잡은 신선어류(수달, 해덕)를 사용하며 품질이 매우 뛰어나고 가격이 비쌌. 그 외 다른 지역에서는 가공기술 낮음. 심지어 지하작업장에서 가공된 경우 품질이 매우 나쁨

민대구(카르카스)

구 분	현지국산	캐나다산	아르헨티나산
품 종	-	<i>Merluccius Productus</i>	<i>Merluccius hubbsi</i>
품 질	뛰어남	뛰어남	매우 뛰어남
가 격	적당함	비싸다	매우 비싸다
시장점유	2%	90%	8%
유통시기	9월~5월 (12월이 최상)		
계절수요	9월~5월 (12월이 최상)		
소비특징	밀가루 입혀 전을 부치거나 굽거나 튀김		
제품특징	캐나다·아르헨티나산보다 품질이 떨어지고 맛이 덜함	품질이 좋지만 아르헨티나산보다 조금 떨어짐	해상선박에서 냉각, 캐나다산보다 더 맛있음
제품단가	-	80루블/kg	90~95루블/kg
판매비중	시장에서 큰 의미를 갖지 않을 정도	100%('아르신택' 사의 경우)	-
사 진			

마. 대형수입업체 '데파 그룹(DEFA GROUP)'

- 인터뷰 일시 : 2011년 6월 27일 12시
- 인터뷰소요시간 : 1시간 20분
- 담당자 : 빅토르 바실리에프
- 지위 : 판매부장
- 취급관련 수산물 : 냉동어류, 해산물, 신선 연어류 등



업체설명 : 러시아시장에 10년 이상 종사하는 대형수입업체로 러시아전역에 걸쳐 수산물 도매공급을 하고 있음. 자체 브랜드('피시카')를 소유하고 있으며 본사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위치함. 대형소매유통체인점(아산, 카루셀, 크바르탈, 렌타, 페레크레스톡, 오케이, 삐쵸로치카 등)뿐만 아니라 도매유통업체, 어류가공업체에 수산물을 공급

■ 현재 수산물 시장경기 및 전망

- 현재 시장은 하락세에 놓여있고 교역(유통)도 약한 상태임. 판매규모는 전년대비 감소. 아직 경제위기 영향이 가시지 않은 상태임. 거래파트너들의 지불능력이 약해진 상태여서 어류를 적게 구입하거나 더 저렴한 어류를 구입하는 식임
- 경제위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얼마나 걸릴지 짐작 불가능함. 현재 전반적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상품가격이 매우 높은 상태이며, 어류의 경우에도 높은 가격 때문에 경제위기 전보다 어류소비가 줄었고 판매량도 감소함. 합당한 가격대라면 수요는 증가할 것임(예를 들어, 대서양연어 330루블/kg이면 수요 있음).

■ 수입산 수산물 시장동향

- 경제위기 전보다 수입산 품목은 감소하고 있음(예전보다 어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함).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수입물량(규모) 또한 감소세임. 이에 비해 러시아산 일부 품목(태평양청어)은 증가세. 데파그룹의 경험상 소량이긴 하지만 점차 러시아산 증가세, 수입산 감소세를 체감하고 있음

■ 주요 수입국 및 취급수산물

- 노르웨이(부어, 청어, 고등어, 열빙어, 청어피레트, 붉은살생선(연어류)), 중국(틸라피아피레트, 명태피레트, 민대구피레트), 베트남(팡가시우스피레트), 칠레(무지개송어, 오징어피레트), 아일랜드 순을 보임
- 모든 어종은 냉동형태로 수입하며, 예외로 노르웨이산 연어류, 무지개송어는 냉장형태로 수입함. 최근 들어 해산물을 취급하지 않고 있음. 카르카스와 피레트 형태로 수입

■ 수입산의 소비

- 자국산과 비교하여 제철소비가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수입산 어종시즌에는 자국산 취급하지 않고 자국산 어종시즌에는 수입산 취급하지 않음(수입업체의 상품구매시기는 어종 어획시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수입업체와 가공업체, 유통업체 등의 창고에 시즌별로 개별 어종들이 구입되어 연중 보관(냉동, 냉장형태)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최종소비자의 경우 상점들에서 연중 동일한 어종을 구매 가능함
- 데파그룹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어류, 어류제품: 노르웨이산 청어(손질하지 않은 온마리 냉동), 청어피레트, 고등어, 노르웨이산 냉장연어, 칠레산 냉동 곱사연어, 열빙어(노르웨이산, 아이슬란드산)

- 데파그룹에서 수입산 원료(포장되지 않은 원료만 취급, 대부분 냉동형태, 카르카스 혹은 피레트 형태)를 구입하여 가공업체에 납품하면, 가공업체는 어류를 가공하여 유통업체에 연중 공급하며, 혹은 데파그룹에서 직접 중량별로 나누어 대형유통업체에 직접 공급하기도 함(20kg짜리를 1kg별로)

■ 어종별 시즌 및 공급형태

- 청어(온마리, 피레트) : 수입산 시즌 9월에서 2월까지, 자국산 시즌 여름철. 블록으로 냉각시킨 형태로 공급
- 고등어(온마리) : 겨울철(수입산)이 가장 좋을 때임(10월에서 2월까지), 데파그룹은 자국산 고등어를 취급하지 않지만 시장에서는 여름철(머리제거한 고등어)에 조금 유통되고 있음. 블록으로 냉각시킨 형태로 공급
- 연어(온마리) : 노르웨이산 양식은 연중, 자국산 은연어와 곱사송어는 8월에서 10월까지 어획된 후 연중 판매. 개별냉각 형태로 공급
- 데파그룹은 러시아산 냉동 곱사송어를 구입하며, 당사(수입업체)이 생산자에게 공급하면 조각으로 잘라서 훈제, 염장하고 있음
- 열빙어 : 블록으로 냉각시킨 형태로 공급
- 보통 수입업체는 원료용 온마리(냉동) 형태로 구입하여 가공업체에게 넘기는데, 왜냐하면 개별 생산자마다 원하는 부위와 용도가 다르기 때문임. 생산자 고유의 기술방법으로 슬라이스, 조각, 피레트 등으로 커팅해서 염장, 훈제, 마리네이드, 페이스트 등을 다양하게 만들

■ 자국산과 수입산의 소비비율 및 전망

- 국내시장에서 수입산의 소비는 60%, 러시아산 40% 소비비율을 보임. 하지만 향후 5년 후에는 이 소비비율이 40% : 60%로 바뀔 것으로 예상됨
- 그 사유로는, 첫 번째, 수입산의 가격이 더 비싸기 때문이며 가격이 저렴한 러시아산에 대한 수요는 계속 높아질 것임. 두 번째로, 자국민들이 자국산 수산물을 소비하도록 홍보, 조장하는 러시아정부의 자국수산업 보호정책으로 인한 것임. 러시아산은 인공양식이 아닌 자연산으로 더 몸에 이로우며 유전자변형물질도 사용하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고 이로 인해 러시아 소비자들은 향후 5년 내 자국산 수산물 소비를 더 선호하게 될 것임
- 따라서 ‘데파그룹’ 에서도 향후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바뀔에 따라 러시아산 수산물을 더 구매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 선호하는 원산지 및 이유

- 노르웨이, 칠레, 베트남, 아이슬란드, 중국, 스코트랜드 등
- 상기 원산지의 수산물은 러시아시장에서 오래전부터 수요가 높았으며 가격이 저렴하면서 품질이 좋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과 품질이며, 가격대비 품질 상태가 좋으면 다른 원산지 제품도 취급할 용의가 항상 있음. 또한, 납품시일이 빨라야 하는데, 컨테이너 운송을 기피하고 있음. 예를 들어, 노르웨이산 청어는 선박으로 5~7일 이내 배송 받고 있고, 컨테이너일 경우 2주가량(14일~15일) 걸림

□ 수입 품종 및 규모의 전망

- 현재 수산물소비는 경제위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산의 소비가 이전보다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수입 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러시아산과 수입산의 품종 및 규모 모두 증가할 것으로 보임
- 현재 ‘데파그룹’ 이 개발하고 있는 신규품종으로는 유럽바다배스(냉장), 도미(냉장)가 있고, 냉장형태로 운송하기에 적합한 거리에 위치한 터키와 그리스에서 수입하고 있음. 이 품종들은 대형슈퍼마켓과 피시레스토랑에서 수요가 있어 전망이 높음
- 러시아는 경제위기 후 중간급이 부재한 상태이며 프리미엄급(연어류, 유럽바다배스, 도미 등)과 저가가격대(열빙어, 청어, 킬카, 살라카, 명태, 대구, 임연수어 등) 두 가지 형태만 시장에 존재함. 소득원이 높은 소비자들은 경제위기에도 프리미엄급을 주로 구매하기 때문에 프리미엄급의 수요가 여전히 있으며 일반 중·저소득층 소비자들은 더욱 저가 상품들 구매를 추구하고 있음. 예외적으로 델리카테센¹³⁾ 제품인 훈제고등어의 경우 가격이 비쌌에도 불구하고 모든 러시아 소비자들이 애호하는 품목으로 소량이라도 정기적으로 구매하고 있음
- 현재 건조미역의 수요는 감소추세에 있어서 중국산을 소량 구매하고 있음
- 뱀장어의 경우 시장에서 수요가 있고, 한국산 냉동 뱀장어(블록형태)가 있다면 살펴볼 의향이 있음

□ 슈퍼마켓에서 수산물(수입산과 자국산 포함) 점유율(판매비율)

- 신선 30%, 요리 및 조제품(훈제, 염장, 냉동반가공품 등) 30%, 캔제품 20%, 냉동(피레트, 카르카스) 20%

13) '델리카테센'은 '평범한 식품과 구별되는 고급스럽고 맛있고 희귀한 진미'를 의미. 희귀하니 주로 가격이 비쌌. 수산물에서는 철갑상어, 캐비아, 붉은살생선(연어류) 등이 델리카테센 품목으로 인식되고 있음. 러시아에서 연어류는 현재 보급이 많이 되었지만 아직 델리카테센한 것으로 인식됨. 각 나라마다, 시대마다 델리카테센 식품으로 인식되는 품목은 변화되고 있음

☐ 거래시 주 고려사항

- 1)품질, 2)브랜드(회사 이미지), 3)가격 순으로 중요시함
- 신규회사의 경우 제품 품질이 우선되며, 프로모션은 큰 역할을 하지 않음. 우선 품질이 나쁘면 시장진입조차 힘들 것임. 이에 비해 러시아시장에 진입한지 오래 되어 이미 자리를 잡은 회사(10년 정도)의 경우 제품 품질은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때는 프로모션에 신경써야 할 것임
- ‘데파그룹’ 은 트레이드이기 때문에 품질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가공업체에 샘플을 보내어 가공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적합한 제품(크기, 색깔, 지방함량 등)인지 평가를 받고 나서 생산업체를 선정하고 있음. 따라서 생산업체와 계약을 맺기 전에 항상 샘플을 먼저 받아 평가과정을 거치고 있음

주요 인기품목

청어(손질하지 않은 온 마리 냉동)

구 분	현지국산	노르웨이산	아이슬란드산
품 종	태평양청어	대서양청어	대서양청어
품 질	보통	뛰어남	뛰어남(노르웨이산보다 조금 뒤떨어짐)
가 격	적당함	비싸다	비싸다(노르웨이산보다 조금 더 저렴함)
시장점유	30%	50%	20%
유통시기(수입업체 구매시기)	창고보관으로 인해 연중판매 (봄)	연중판매 (가을, 겨울)	연중판매 (가을, 겨울)
계절수요	9-2월 (청어는 지방이 높기 때문에 러시아인들은 날씨가 추울 때 청어 선호, 여름철에는 야외에서 샤실릭(꼬치고기)을 구워먹음)		
소비특징	염장(주요), 훈제	염장(주요), 훈제	염장(주요), 훈제
제품특징	손질하지 않은 온마리(손질해 잘라서 판매하지 않음)	머리·내장 제거 등 손질해서 피레트를 조각으로 잘라서 판매 혹은 온마리 판매	노르웨이산과 동일
제품단가	48루블/kg	52루블/kg	50루블/kg
판매비중	10%	70%	20%

고등어(손질하지 않은 온 마리 냉동, 원료용)

구분	노르웨이산	스코틀랜드산	아이슬랜드산
품종	대서양고등어	대서양고등어	대서양고등어
품질	뛰어남	뛰어남	보통
가격	비싸다	비싸다	적당함
시장점유	40%	40%	20%
	매년 쿼터가 다르고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점유율은 매년 변동됨		
수입업체 구매시기	가을, 겨울	가을, 겨울	가을, 겨울
계절수요	연중(참고보관으로 인해) 고등어훈제는 여름철에도 팔리지만 조금 판매 감소(지방이 많아서)	연중 여름에 조금 감소	연중 여름에 조금 감소
소비특징	훈제(95%), 염장(5%) : 보통 훈제고등어는 술안주로 소비	훈제(95%), 염장(5%)	훈제(95%), 염장(5%) : 염장고등어는 주부들이 직접 손질해서 사이드 디시로 소비(살은 감자와 함께)
제품특징	보통 겨울철 어획한 것은 훈제용으로 사용, 여름철 어획한 것(소량 어획)은 기름이 많아서 훈제 안하고 염장으로 사용		
제품단가	110루블/kg	106루블/kg	105루블/kg
판매비중	30% 판매비중은 매년 다름	70%(가격이 노르웨이산보다 조금 더 저렴해서) 판매비중은 매년 다름	좋은 품질이 있다면 100% 아이슬랜드산을 구매하나 현재 그런 상품은 없음(노르웨이산과 스코틀랜드산보다 가격이 싼 대신 품질이 떨어짐)

무지개송어(rainbow trout)

구분	현지국산	칠레산	노르웨이산
품종	카렐리아 양식 무지개송어	양식 무지개송어	피오르드 양식 무지개송어
품질	별로	뛰어남	매우 뛰어남
가격	싸다	비싸다	매우 비싸다
시장점유	5%	70%	25%
구매시기	여름	연중	연중
계절수요	여름	연중(특히 겨울철에 수요가 높고 여름철에 감소)	연중(특히 겨울철에 수요가 높고 여름철에 감소)
소비특징	조각으로 잘라서 신선형태로 판매, 훈제, 일식점에 납품되지 않음	훈제, 염장, 스테이크용으로 판매	스시바 등 일식점 납품*, 신선 판매, 염장, 훈제 스시바에서는 냉장형태만 구매하며, 가격·품질 면에서 노르웨이산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됨
제품특징	냉장(머리있음, 내장제거) 냉동(머리제거, 내장제거)	칠레는 원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냉동(머리제거, 내장제거)형태로만 러시아 공급	냉장(머리있음, 내장제거) 냉동(머리제거, 내장제거)
제품단가	215루블/kg(냉장)	240루블/kg(냉동)	270루블/kg(냉장)
판매비중	5%	85%	10%

* '데파그룹'에서는 일식점으로 식재료를 납품하지 않으며 대형소매유통체인점으로 납품함

4. 러시아 주요 수산물업체 사이트

가. 수산업 관련 사이트

연방 수산청

- 수산업 관련 법규, 어획량 현황, 수산업 관련 뉴스 등 조회 가능
- <http://fish.gov.ru/Pages/Default.aspx>

어업모니터링시스템센터

- 어종별 쿼터, 어획량, 어류제품 생산량, 수산업 관련 법규 등 조회
- <http://www.cfmc.ru/>

동식물검역국

- 검역 및 수출입 관련 규제, 규정 등 조회
- <http://www.fsvps.ru/fsvps>

수산업 관련 뉴스, 업종별 업체 조회, 수산물 가격 조회

- 피시 넷 : <http://www.fishnet.ru/>
- 피시 포털 : <http://www.fishportal.ru/>
- 피시 리테일 : <http://fishretail.ru/>
- 피시 인더스터리 : <http://www.fishindustry.net/>
- 피시 뉴스 : <http://fishnews.ru/>
- 피시 리소스 : <http://www.fishres.ru/>
- 피시-시푸드 : <http://www.fish-seafood.ru/>
- 극동지역 수산업체 동맹 : <http://www.dalryba.ru/>
- 어민신문 : <http://www.fishonline.ru/>
- 어류유통시스템 : <http://www.fishery.ru/>

나. 바이어 리스트¹⁴⁾

회사명	관 련 정 보
ZAO Russkaya Rybnaya kompaniya (모스크바)	- 주소: 115114, Moscow, St. Letnikovskaya, 10/5 - 전화: +7-495-775-7661~2 - Fax: +7-495-775-7662 - e-mail: info@rusfishcom.ru - Site: http://www.rusfishcom.ru/ - 취급품목: 신선냉동, 냉동, 냉장 어류·해산물 - 업종: 수입, 수출, 도매구입, 도소매납품, 요식업체·HoReCa 납품 (본사 모스크바 위치, 이외 러시아 22개 지역 사무소)
ShalnoFF (니즈니 노브고로드)	- 주소: Russia, Nizhniy Novgorod, prospekt Lenina, 31/2, office №12 - 전화: +7-831-245-5553 (director: 블라디미르 살노프), 245-4551 - Fax: +7-831-252-5920 - e-mail: shalnov@ryba-optom.ru - Site: http://www.ryba-optom.ru/ - 취급품목: 어류·해산물 냉동, 냉장, 건조, 반가공품, 피레트, 기타어류제품 - 업종: 수입, 도매납품, 요식업체·HoReCa 납품, 도매구입
OOO Unitrade (모스크바)	- 주소: Moscow, St. Izhorskaya, 7 - 전화: +7-926-539-8156 (director: 알렉산드르), +7-905-716-0012 - Fax: +7-495-787-0781, 486-4703 - Site: http://www.ooounitrade.ru - 취급품목: 신선냉동, 냉동 어류·해산물 - 업종: 수입, 수출, 도매납품
OOO Fly fish (모스크바)	- 주소: 119334, Moscow, St. Akademika Nesmeyanova, 2 - 전화: +7-495-641-3838, 642-8630 - Fax: +7-495-641-3838, 642-8630 - Site: http://www.flyfish.fishnet.ru/ - 취급품목: 신선냉동, 냉동 어류·해산물(대서양고등어, 대서양청어, 대서양볼락, 열빙어, 민대구, 콩치, 명태, 오징어 등), 기타어류제품 - 업종: 수입, 도매납품
OOO Sebastes (모스크바)	- 주소: 123308, Moscow, 1-st Magistralny tup. 5A - 전화: +7-495-725-5577 - Fax: +7-495-988-7801 - Site: http://www.sebastes.ru - 취급품목: 신선냉동, 냉동, 냉장 어류·해산물(가리비, 미역, 오징어, 새우, 민대구, 연어, 정어리, 틸라피아, 홍합, 명태, 볼락, 넙치, 팡가시우스, 콩치, 청어 등), 피레트 - 업종: 수입, 도매구입, 도소매납품

14) 회사형태: OOO 유한책임회사, OAO 개방주식회사, ZAO 폐쇄주식회사, GK 그룹 컴퍼니, TK 트레이딩 그룹

회사명	관 련 정 보
OOO Sadra G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Moscow, St. Vavilova, 83 - 전화: +7-495-937-5731 - Fax: +7-499-134-4041 - Site: http://sadra.ru - 취급품목: 신선냉동, 냉동, 냉장 어류 · 해산물, 피레트 - 업종: 도매구입, 도매납품
OOO Panafish (블라디보스토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690003, Vladivostok, St. Bestuzheva, 21A, office 106 - 전화: +7-4232-44-6920 - Fax +7-4232-44-6944 - Site: http://www.panafish.ru/ - E-mail : office@panafish.ru - 취급품목: 가리비, 미역, 오징어, 새우, 민대구, 연어, 킬라피아, 홍합, 가자미, 명태, 볼락류, 넙치, 팡가시우스, 콩치, 청어 등(신선냉동, 냉동, 피레트, 기타 어류제품, 캐비아) - 업종 : 수입, 도매납품
OOO TK DEFA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Moscow, Leningradskoe shoshe, 65, stroenie 5 / Saint-Petersburg, St. Repisheva, 14 - 전화: +7-495-221-2901, +7-812-448-5144 - Fax: +7-495-221-2901 - e-mail: moscow@defagroup.com - Site: http://www.defagroup.com/ - 취급품목: 신선냉동, 냉동, 냉장 어류 · 해산물 - 업종: 수입, 도매납품
ZAO Murmansktorgsna bservice (MTSS) (무르만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183038, Russia, Murmansk, prospekt Lenina, 31, office 18 - 전화: +7-8152-25-6769, 25-6733, 25-4471 - Fax: +7-8152-25-4280 - Site: http://mtss-fish.com - 취급품목: 신선냉동, 냉동, 냉장 어류 · 해산물 - 업종: 수입, 도매납품
GK Severnaya Buhta (모스크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Moscow, Ogorodny proezd, 16 (Moshladokombinat №9) - 전화: +7-499-253-4901, 253-4974 - Fax: +7-499-253-4965 - Site: http://www.nordbay.ru - 취급품목: 북방새우, 연어, 명태, 킬라피아, 곱사연어, 민대구 등 - 업종: 수입, 도매납품
OOO Novy Vostok (모스크바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Moskovskaya oblast, city Lyubertsy, St. Kirova, 26 - 전화: +7-495-661-7957, +7-915-059-7000 - e-mail: 6617957@mail.ru - 취급품목: 건조 어류 · 해산물 - 업종: 수입, 도매납품

회사명	관 련 정 보
GK Agama (모스크바 주)	- 주소: 143581, Moskovskaya oblast, Istrinskiy raion, Pavlo-Slobodsiy selski okrug, d.Leshkovo, 210 - 전화: +7-495-580-9640 - Fax: +7-495-580-9640 - Site: http://www.agama.info/ - 취급품목: 가리비, 오징어, 킹크랩, 대게, 새우, 홍합, 명태, 넙치, 팡가시우스, 대구, 참치 등 - 업종: 디스트리뷰터, 도매판매
OOO Apio-KM (모스크바)	- 주소: Moscow, St. Prishbina 3 - 전화: +7-499-502-6030 - Site: http://www.fishsword.com/ - 취급품목: 가자미, 명태, 넙치, 팡가시우스, 콩치, 청어, 연어, 고등어, 대구, 참치 민대구, 곱사연어 등 - 업종: 디스트리뷰터, 수입, 도매판매, 바이어, 선박임대, 선박구입/판매, 수출
Baltiyskaya Rybnaya Kompaniya (칼리닌그라드)	- 주소: Kaliningrad, Leninskiy prospekt, 13-A - 전화: +7-4012-728150 - Fax: +7-4012-728160 - Site: http://www.baltrybkom.ru/ - 취급품목: 오징어, 미역, 가자미, 곱사연어, 명태, 볼락류, 넙치, 콩치, 청어, 고등어, 민대구, 참치, 연어 등 - 업종: 수입, 도매판매, 소매유통
OOO Bioresurs LTD. (상트-페테르부르크)	- 주소: 195271, Russia, Saint-Petersburg, St. Bestuzhevskaya 10, office 305 - 전화: +7-905-257-3333 - Fax: +7-812-680-2520 - Site: http://www.bioresursltd.ru/ - E-mail: info@bioresursltd.ru - 취급품목: 가리비, 오징어, 새우, 홍합, 문어, 곱사연어, 가자미, 연어, 명태, 청어, 민대구, 대구 등 - 업종: 디스트리뷰터, 수입, 어류가공설비, 도매판매, 바이어, 창고서비스
OOO VEL FISH (모스크바)	- 주소: Moscow, St. Michurinskiy prospekt, 54 - 전화: +7-495-642,6092, +7-916-555-6092 - Site: http://wellfish.ru/ - E-mail: wellfush@rambler.ru - 취급품목: 가자미, 명태, 민대구, 잉어, 유럽붕어, 농어과(pikeperch) 등 - 업종: 수입, 도매판매
OOO VESTA (모스크바)	- 주소: 121351, Moscow, St. Molodogvardeyskaya a/ya 174 - 전화: +7-495-981-1364 - Fax: +7-495-981-1365 - Site: http://www.greenwichwest.ru/ - 취급품목: 오징어, 미역, 가자미, 명태, 참치, 정어리, 전갱이 등 - 업종: 디스트리뷰터, 수입, 도매판매, 어류가공, 창고서비스

회사명	관 련 정 보
OOO Vladfish Trade (블라디보스토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690074, Vladivostok, St. Snegovaya, 64 - 전화: +7-4232-975193 - Fax: +7-4232-535275 - Site: http://www.vladfish.ru/ - 취급품목: 오징어, 문어, 가자미, 명태, 볼락류 등 - 업종: 수입, 도매판매, 어류 및 해산물 수송
OOO Istok-2 (상트-페테르부르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196240, Saint-Peterburg, St. Kostyushko 19 - 전화: +7-812-722-0709, +7-812-723-2258 - Fax: +7-812-722-0709, +7-812-723-2258 - Site: http://www.istokfish.ru/ - 취급품목: 오징어, 새우, 곱사연어, 명태, 볼락류, 청어, 대구, 연어, 민대구 - 업종: 수입, 도매판매
OOO Foodtrader (블라디보스토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690039, Russia, Vladivostok, Prospekt 100-let Vladivostoku, 103, office 226 - 전화: +7-4232-31-6621, +7-4232-31-9248 - Fax: +7-4232-31-9248 - Site: http://www.foodtrader.ru/ - 취급품목: 청어, 명태, 민대구, 팡가시우스, 연어, 오징어 등 - 업종: 디스트리뷰터, 도매유통, 수입
Company CBETOCH (블라디보스토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Vladivostok, St.Nerchinskaya 50-23 - 전화: +7-4232-790111, 428748 - Fax: +7-4232-425162 - Site: http://www.fishline.biz/ - E-mail: fish@fishline.biz - 취급품목: 가리비, 오징어, 킹크랩, 명태, 넙치, 콩치, 청어, 대구 등 - 업종: 디스트리뷰터, 수입, 도매판매, 바이어, 항구서비스, 어업, 수출
OOO Mega Line (상트-페테르부르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Saint-Petersburg, St. Ruzovskaya 21 - 전화: +7-812-380-0840 - Fax: +7-812-380-0841 - Site: http://www.megalinefish.com/ - 취급품목: 가리비, 오징어, 게, 새우, 홍합, 문어, 굴, 가자미, 연어, 명태, 청어, 민대구, 참치, 고등어, 틸라피아, 팡가시우스 등 - 업종: 디스트리뷰터, 수입
BARRACUDA (상트-페테르부르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194100, Saint-Petersburg, St. Kantemirovskaya, 12, office 147B - 전화: +7-812-320-3052 (세르게이 마즈마노프) - Fax: +7-812-320-3052 - Site: http://www.barracudatrade.com/ - 취급품목: 오징어, 미역, 명태, 콩치, 청어, 정어리, 고등어, 대구, 민대구, 넙치 등 - 업종: 수입, 도매판매, 통관서비스
OOO Nordic Seafood Rus (상트-페테르부르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195112, Saint-Petersburg, Business Center Geprebor, Malohtinskyi prospect 68, Liter A, Office 113 - 전화: +7-812-333-1490 - Fax: +7-812-333-1492 - e-mail: nordicseafood@mail.ru - Site: http://www.nordicseafood.ru/ - 취급품목: 신선냉동, 냉동, 냉장 어류·해산물, 피레트 - 업종: 수입, 수출, 도매납품, 요식업체·HoReCa 납품